

꼭, 이루고 싶어

2023.
January
vol.449

PLANS FOR THE
NEW YEAR



01 : January

꼭,
이루고
싶어

소망을 열망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새해 소망을 생각해봅니다.
당신은 올해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은가요?
소망을 간절히 염원하고 또 노력함으로써
올해가 끝날 무렵에는 당신이 생각한 대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꼭 이루고 싶다는
당신의 말에

누구보다
귀를 기울이는
이
것



Contents

2023.
January
vol.449

꼭, 이루고 싶어

08

에세이
꼭, 이루고 싶어

12

슬기로운 생각
당신의 삶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
마인드파워 스쿨 조성희 대표

18

IBK가 만나다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되다
트로트 가수 박군

24

IBK NOW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IBK사의 새해 소망은?

32

IBK업글인
보드에 몸을 맡기고 눈 덮인 설원을 활강하다
대림동지점 강현아 대리

40

IBK맛집노트
IBK본점편

46

발길 닿는 길(국내편)
첫 해가 뜨는 길
강릉

50

발길 닿는 길(해외편)
붉은 여명 깃드는 사막의 길
이집트

54

IBK산
광주의 진산, 무등산에 올라
새해 다짐을 외치다

62

IBK버킷리스트
IBK 설날은 오늘이래요!
가산패션타운지점 권채운 대리

70

IBK핸드메이드
따뜻한 자이언트 안 가방 원데이 클래스
부산지역본부

78

카툰으로 보는 역사
이항복의 소원

80

요즘, 시선
새롭게 찾아오는 설날
변화가 만들어낸 풍경

84

IBK히어로
작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다
동해지점

94

히든챔피언
방역차 압도적 1위, 국내 먹거리 산업과 함께 성장하다
(주)한성티앤아이 황인성 대표

100

창공, 날다
혁신 기술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IBK창공 기업

106

사소한 꿀팁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 고르는 법

110

우리말 한 걸음
새해 인사 문자 고마운데
이런 맞춤법 너무 거슬려...!

112

IBK뉴스
이달의 뉴스

114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시 / 이달의 인증샷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1월 2일 발행인 은행장 윤종원 편집인 조민정, 이승은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홍보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꿈에
불과할 수 있다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에게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세계 축구사에 기록될
스트라이커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작은 소원을 이뤄내고
또 이뤄내다 보면 어느새 소원은 점점
커지기 마련이다.
매년 새롭게 이루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명저
<시크릿>은 간절히 바라면 이뤄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 가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지만
매력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단언컨대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면
성취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다.
지난 2002년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꼭 이루고 싶다고.**



How to Make a Wish Come True



당신의 삶에서 소원을 이루는 방법

언제부턴가 새해 소원을 빌지 않게 되었다. 소원을 비는 것이 실제 이뤄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마인드 분야 권위자인 조성희 대표가 말하는 소원의 힘에 대해 들어보자.

글 조성희

사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

마인드파워 특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때와 같이 우렁차게 “네!”라고 대답한다. “물론 그러시니까 그 멀리서 마인드파워 머니 특강을 들으러 오신 거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지하 사글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던 시절, 나도 그토록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정작 내 자신이 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남들 등쳐먹어 잘사는 인간들로만 보였고, “돈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물로만 보였고, 돈을 많이 벌면 지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나의 잠재의식 속 어딘가에서 ‘가난’과 ‘청렴’을 동일시하고 있었고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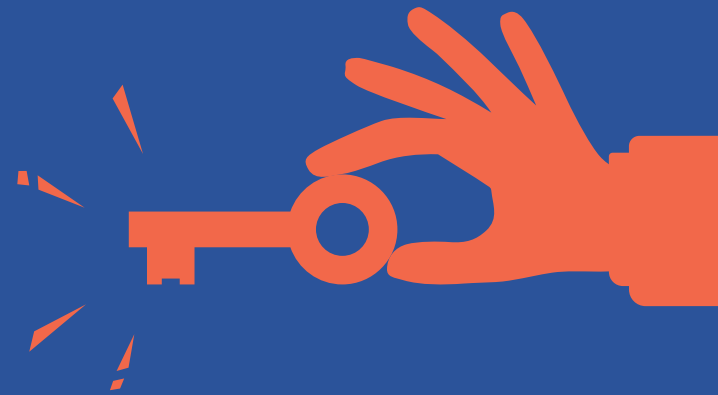
집안에 열쇠를 두고 밖에서 찾는 일

IBK 기업은행 매거진 <with IBK> 슬기로운 생각에 들어갈 칼럼을 의뢰받고, 최적의 명당자리를 찾았다. 지금 나는 호치민시티에서 가장 현금이 많이 돌고 있는 곳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환율을 은행보다 잘 쳐준다는 그곳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환전을 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글을 쓰는 이 순간 풍요의 에너지가 가득하다. 나 또한 여기에 오기 바로 직전, 소문을 듣고 상당히 많은 달러를 환전했다.

내 안의 잠재의식 속 돈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를 바꾸며 나는 비로소 사글세방과 옥탑방의 굴레, 빗더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난’은 절대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풍요의 마인드셋이 장착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했다.

조성희 작가

성공/치세 분야 63주 베스트셀러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 저자. 마인드파워스쿨의 대표이자 나폴레옹 힐의 계승자 밥 프록터의 유일한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이다. 국내 1호 마인드파워 스페셜리스트로서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 국제교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4시간 근면하게,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도, 언제나 현실을 마주하고는
무너져버리고 불안과 부정 속으로 빠지기 일쑤였던
나에게 사실 성공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전설적인 자기계발 구루인
밥프록터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미국, 유럽,
싱가포르, 중국 등의 큰 무대에서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12권의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며 매 순간 풍요와 행복을 느끼며 내가
꿈꾸던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까?

내가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체험하게
한 것은 바로 마인드파워였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실을 바꾼다. 그동안 나는 열쇠를 집안에
두고 밖에서 찾고 있었던 셈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실을 바꾼다.
그동안 나는 열쇠를
집안에 두고 밖에서 찾고
있었던 셈이다.



자신의 소원을 명확하게 가져라

모든 것은 당신만의 명확한 목표부터 시작된다.
지금 별똥별이 당신 앞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어떤 소원을
기도하겠는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 바로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얼마나 그 소원을 명확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으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말할 수
있겠는가?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확하고 간절하게 소원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모든 자기계발서의 토대가 된 <Think and Grow
Rich>의 저자 나폴레온 힐은 성공학의 원리를
정립하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 30년에 가까운 생애를 바쳤다.
그렇게 1만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분석한 이들의 95%는
실패자였고, 단 5%만이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이 두 그룹 사이에 3가지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 사실은 실패자로
분류된 95%가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으로 분류된 5%만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까지
갖고 있었다.

돛을 올리고 두 척의 배가 출발한다. 한 척은 가야할
목적지가 분명하다. 선장은 이곳으로 갈 것이라고
지도에서 명확하게 표시했고 선원들에게도 그
경로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 이들이
가는 동안 어떤 기대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돌아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한 척은 선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하지 않았고 선원들도 별다른
생각이 없다. 그냥 무작정 돛을 올리고 떠난 그 배는
이리저리 바닷물에 휩쓸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영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좌초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불분명하고 흐릿하다면 나의 인생 또한 그러할
것이다.

Goal



나를 설레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목표

자신이 태어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흥미진진하고 멋진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목표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단순히 '나는 많은 돈을 원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와 같은
 불분명한 바람이 아닌, 정확히 얼마를 원하는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 속에서 진심으로 원하는 것(Wants)이어야
 한다. 필요한 것(Needs)에는 어떤 영감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얻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성장'도
 없다.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면 내가 선택한 목표는 목표로서의 가치가
 없다. 물론 그것을 의심 없이 얻을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의식에 어떤 성장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더 큰 영감을 준다.
 목표는 사실 논리적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것이
 비논리적일 때 더욱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밥프록터는 언제나 말한다. "목표는 충분히 높아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두렵게
 하기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게 하는
 목표!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만일 세상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고 어떤
 의욕이 생기겠는가?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의지나 희망을 가지고

SCREENS

매일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희망 없는 삶, 너무도
 재미가 없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고 짜릿해진다.



높은 목표는 나를 설레게 한다

마인드파워 심화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리는 비전보드(위너스북)을 만들 때, 나는
 수강생 분들에게 평소에 자주 가는 공간이 아닌
 부의 기운이 흐르는 곳에 가서 총만하게 풍요의
 기운을 느끼면서 비전을 설정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with IBK> 슬기로운 생각에서 칼럼으로
 만난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다. 풍요의 공간에서
 2023년 당신만을 위한 총만하게 행복 가득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성공학의 대가로 꼽혔던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 좀 이상한 사실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나 목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은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재능과 능력의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 얼 나이팅게일이
 말하듯이, 이 글을 쓰는 내가 할 수 있었다면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할 수 있다.

기억하라!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당신의 인생이다.
 사는 것을 연습으로 낭비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
 남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아니기에 당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한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누릴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2023년 이 칼럼을 읽는 분들께 많은
 영감과 큰 풍요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도한다.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되다

트로트
가수

**박
군**

'한잔해'라는 곡으로 데뷔, '강철부대 2'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철 같은 생명력과 빛나는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박군(본명 박준우). 가수의 꿈을 잃지 않고 오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박군을 만났다.

글 편집실 사진제공 토탈셋





가수라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긍정적인 사고가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상황이 어려워도 '나를 위해 하늘이 선물을 주는구나' 생각하는 편이에요.

Q. 한때 옥탑방 월세살이에 작은 무대만 전전하던 무명 가수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유명 가수가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수를 꿈꾼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특전사 복무시절, 트로트라는 장르가 힘든 군생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트로트를 듣고 부르는 것을 좋아해 지역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노래 재능기부를 했었는데 힘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 힘이 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죠.

Q. 15년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명곡 ‘한잔해’ 오디션에 참가해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사 신조를 바탕으로 군시절부터 단련한 강인한 정신력과 인내력, 생존력으로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긍정적인 사고가 한몫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코로나19로 행사가 없었는데, “조상님들이 올해 행사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쉬엄쉬엄 조심하라는 의미인가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군시절에는 휴가가 취소되면 차량 이동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늘이 도운 거라고 생각했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나를 위해 하늘이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Q. 자신의 소망에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장윤정 선배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무슨 일이건, 어떠한 상황이건 내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사람인 척하는

나쁜 사람들을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Q. 팬들에게는 긍정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도 가수라는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었을까요?

긍정적 에너지는 저의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지내다 보니, “박군은 참 밝아서 보기 좋다”, “박군과 있으면 행복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다”며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박군이 지금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거겠죠. 아직 성공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성공이란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과 모든 요소가 전부 맞아떨어졌을 때 이뤄지는 것 같아요.

Q.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타 가수라는 소원을 이루셨는데요. 소원을 이룬 현재, 또다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면?

아직 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웃음) 그래도 인지도 있는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전국의 IBK기업은행 가족 여러분들과 박군 사단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Q. 나에게 트로트란 OOO이다?

저에게 트로트란 ‘생명수’입니다. 제 노래를 듣고 활력을 얻었다거나, 저를 보고 우울증이 치료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저를 보고 희망을 얻었다며,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무척 부듯하고 되려 제가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트로트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기에 트로트는 저에게 생명수인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래 가수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항상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박군이
되겠습니다!

Q.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강철부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철부대에서 큰 활약을 해주셨는데, 당시에는 어떤 심정으로 출연을 결심하셨나요?

사실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는 겁이 났습니다. 제가 보이는 모습이 특전사의 전투력을 폄하하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 특전사의 강인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Q. 최근 '아침밥상'이라는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가사를 듣다 보면 어느새 눈물짓게 되는 노래인데요. 신곡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먹던 아침밥상을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조금 더 먹으라며 챙겨주시던 할머니와 할아버지, 더 먹겠다고 싸우던 형제들, 무엇보다 식구들을 위해 모든 음식을 다 준비 해주시던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예요. 이번 신곡에 애정을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뮤비에서 아침밥을 먹는 장면에 출연할 배우부터 장소, 소품, 의상 등을 직접 섭외하고 준비했어요. 전문 배우를 섭외하지 않고 일반인인 지인들을 섭외했어요. 옛 시골 느낌

을 그대로 재현하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제 마음을 팬 분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었거든요.

Q. 2022년 가수 한영씨와 백년가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새로운 가정에서 꼭 이루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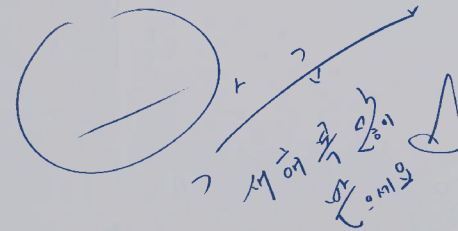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행복도 찾아오기 때문이죠. 앞으로 아내와 반려견 오월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박군이 IBK 매거진 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with IBK> 독자 여러분!

저의 모친께서 살아생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저는 모친께서 하셨던 말씀을 늘 되새기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긍정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23년 흑토끼해, 토끼처럼 꺾충꺾 충 높이 뛰어 이루고자 하는 일들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IBK 기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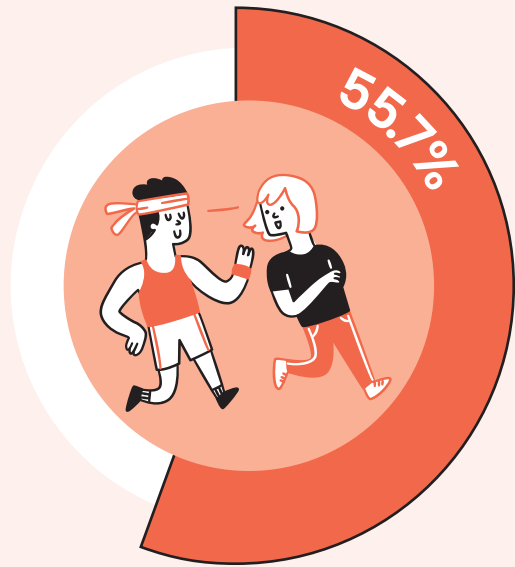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IBK인의 새해 소망은?

연초를 맞아 새해 목표나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생각해보자. 떠오른 것들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1년 동안 선택의 순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우리의 인생은 매번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진다. 2023년 계묘의 해, IBK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정리 편집실

IBK인의 2023년 소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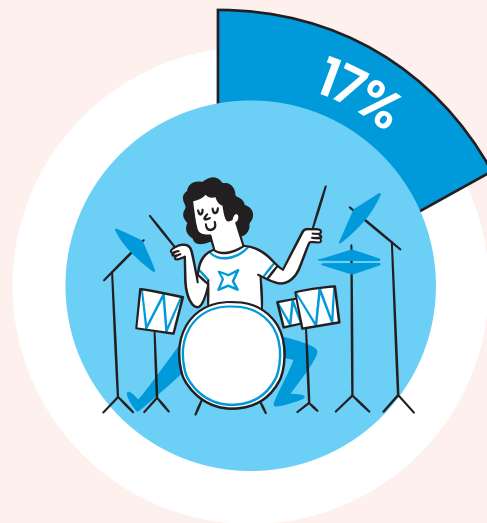
1위



가족의 건강

IBK인의 가장 큰 소원은 역시 가족의 건강이다. 행복의 필요조건인 건강은 매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020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건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함께 운동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2위



학업&자기개발

2위를 차지한 것은 학업 및 자기개발과 관련된 소원들이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IBK인들의 면모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공부는 평생을 하는 것이라고 했던가. 2023년에는 새로운 성장을 기대해 보면서 한 해의 자기개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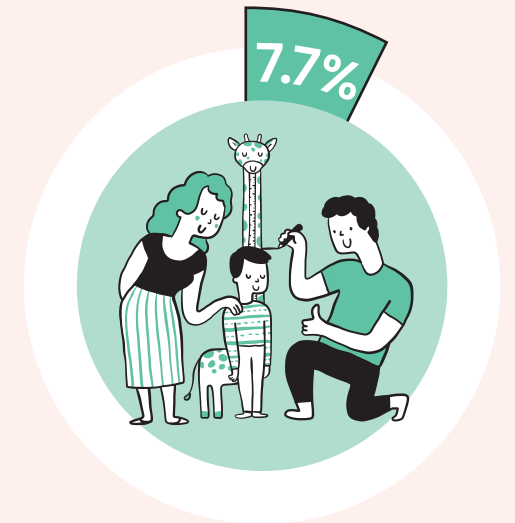
3위



금전적 성취

금융인인 IBK인들은 금전적 성취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새해 소망에서는 가족의 건강이나 개인의 성장이 더 우선되는 것 같기도 하다. 계묘년 새해 좋은 기운을 받아 금전적 성취도 꼭 이루시길 기원한다.

4위



가족, 연인관계

가족 및 연인관계와 관련된 소원을 말한 IBK인도 많았다. 자식과의 관계 개선이나 좋은 추억 만들기, 혹은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엄마, 믿음직한 아버지로 싶은 IBK인의 따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가족의 건강

55.7%

가족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 '가족의 건강'이 2023년 새해 소망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가족과 나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건강을 소원하는 IBK인도 많았다.

본인 및 가정이 편안해야 직장생활, 자기 계발도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무릎 수술이 잘 되어 따뜻한 봄에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IBK고객센터 김영미



아들이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서 치료를 반복했는데 1월에 제대하면, 치료에 집중해서 더 건강한 청년으로 복학하길!

여신심사부 박형숙

가족 건강은 항상 1순위죠. 웰빙 식품 섭취, 꾸준한 운동, 주기적인 검진 등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신길동지점 김통일

우리 아내, 아들, 딸 2023년도에도 지금처럼 아프지 않고 밝은 웃음으로 1년 보내자!

양산지점 김동우

모두 건강하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은 잘 적응해주길!

조치원지점 박성아



최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반월대로지점 이유라

할머니 더 이상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역삼중앙지점 김민정



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건강과 행복이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금용소비자지원부 이지영

현재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내년에는 운동량을 늘리고 싶어요.

제천지점 김지영



아기를 낳으니까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게 되네요.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잘 키워내기가 목표입니다!

마석지점 최진규

가족의 건강과 큰아이의 취업과 작은아이의 복학이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교동지점 정영미

건강한 삶이 최고~ 매일 30분씩 꼭 운동하기!

동수원지점 홍연경

연로하신 부모님, 중년의 우리 부부, 활발히 활동할 자녀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금용소비자지원부 정정숙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운동도 하고, 말만 하는 한 해가 되지 않기를!

포항지점 이선진

올해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흥매화산단지점 이승호

새해에는 엄마랑 같이 요가를 다니면서 허리디스크를 같이 이겨내겠습니다!

IT정보부 이유정



학업&자기 계발

17%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자!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학업계 자기계발을 소망하는 IBK인도 많았다. 자격증, 언어 공부부터 마라톤 완주까지,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2022년 100권의 독서를 목표를 달성한 후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냥 핑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도 또다시 100권의 독서를 통해 책 읽는 행복을 다시 느껴보고자 합니다.

부산경남여성심사센터 정명철



내년에는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출가분하게 지내고 싶어요.

남대문지점 고인실

부동산 경매 공부에 매진하여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파이팅!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나만의 예쁜 케이크 만들기

일산성석지점 이두현

중국어 마스터와 HSK 4급을 따고 싶어요.

서여의도지점 정재웅



토익 1등급, 공인중개사 합격!
양재동지점 한완수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는데, 곡선주로를 타고 싶어요. 올해는 하체 단련에 힘쓰자, 중년의 건강은 하체 근육이다.

오송지점 김하정

금전적 성취

16%

금전적 성취를 통해 풍요로운 한해 만들기! 새해 소망의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적 성취'가 3위로 선정됐다. 2023년, 금전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해보자.



지키자! 지키는 거만큼 중요한 건 없다. 하지만 로또 당첨 기다리고 있어요. 매주 구입하고 있는데 행운을 주세요~

구미지점 정은숙

새해에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금정운 내게 불어라

불어라 불어라!

학동역지점 남민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로또 1등 당첨

직원행복부 윤용만

소비를 줄이고 열심히 모으고 공부해서 목표 금액 달성하자!

노원역지점 봉에스터

헌 집 팔고 새 집으로 이사

울산WM센터 심수연



자가 마련해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되어 보자.

구미4공단지점 곽한별

카드 끊기 전에 3초만 생각하기! 없어도 그동안 잘 살아왔다!

일산성석지점 정지영



가족&연인관계

7.7%

가족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아직 짝이 없는 IBK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이 찾아오길 바란다.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의 말과 행동에 공감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내년에는 꼭 아이들의 투덜거림과 짜증에 공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포승공단지점 박미진

**첫째아들한테 화내지 않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길.**

카드사업부 박서영

초등학생이 되는 딸아이를 위한 휴식에서 가장 멋지고 값진 1년을 보내기.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로 가득하길!

구로디지털중앙지점 강재신



유학 간 아들과 딸이 건강하게 대학 졸업하는 게 소원입니다.

카드마케팅부 이해경

가족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함께할 연인이 찾아와 행복한 연인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안청수지점 김진혁

내가 아이를 만난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사랑할게!

IBK고객센터 이은하

우리 가족 매일매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신나는 일 만들어서 조금씩 더 행복해지기!

시화MTV지점 정소영



with IBK

기타

3.6%

보다 구체적인 새해 소망을 말해준 IBK인들도 있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새해 소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가을하프마라톤 완주! 마라톤은 직장생활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활력소다.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시작하면 건강한 나의 습관이 될 것이다!

송탄지점 장문보

지금까지는 아이들의 엄마로 바쁘게 살아왔다. 막둥이 고3을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리스트를 작성해본다. 급하게 말고 천천히 가까운 친구들과의 3박 4일 정도 여행하기,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해 좋아하는 뮤지컬 2회 이상 관람하기, 미뤄둔 책들을 최소 한 달에 1권 정도 읽기 등.

아~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같다.

성서지점 서유정



말은바 업무에 최선을 나하는 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하프마라톤 완주 도전! 부상 없이 달려보자!

IT디지털개발부 주소영

내년에는 꼭 코로나가 증식되어서 마스크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요.

IBK고객센터 박다인



나만을 위한 힐링시간 갖기. 1달 1문화생활 :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공연 관람 등

부산역지점 김경연

보드에 몸을 맡기고 눈 덮인 설원을 활강하다

바야흐로 레저 스포츠의 계절인 겨울이 찾아왔다. 겨울 스포츠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나 스키와 스노보드. 2023년 1월에는 IBK의 스노보드 고수 강현아 대리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대림동지점 강현아 대리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의 지원을 받아 촬영되었습니다.

한 번 타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

겨울의 정점이다. 눈발이 흠날리는 날이면 따뜻한 코코아 한 잔도 생각나지만, 한편으로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활강하는 상상도 해보곤 한다. 이 맘쯤이면 유튜브 추천 영상으로 동계올림픽 영상이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의 영상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사람들이 겨울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겨울이면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이는 장소도 바로 스키장이다. IBK에도 스노보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이가 있다. 바로 대림동지점의 강현아 대리다. 오랜만에 스키장을 찾았다는 그녀는 오늘 하루 모든 코스를 정복하겠노라 다짐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만큼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전히 재밌는 여행이나 페스티벌, 액티비티를 찾아다녀요. 스키랑 보드도 막연히 고급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2008년 겨울에 함께 지내던 친구가 스키장을 가자고 권유해서 따라갔다가 보드를 처음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스노보드에 푹 빠지게 되었죠. 한창 즐겨 탈 때는 스노보드를 타는 꿈도 자주 꾸었습니다.”

스노보드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강현아 대리는 스노보드를 ‘애증의 관계’라고 부른다. 너무 재미있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기도 하지만, 잘 타고

친구를 따라갔다가 보드를 처음 다보고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창 즐겨 탈 때는 스노보드를 타는 꿈도 꾸었어요.





싶은 마음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마음 편하게 타러다가도 어느새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다가 칭찬을 받으면 또 날아갈 듯 기쁘게 된다고. 그렇게 즐거움과 스트레스를 모두 주는 스노보드를 계속 즐기는 이유는 아마도 성취의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 속을 내 마음대로 활강해서 내려가는 게 스노보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속도를 내면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느낌은 스노보드를 직접 타보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또 라이딩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다 매력이 있어서 지루해

질 틈이 없어요. 때로는 예쁜 라이딩을 하기도 하고 때론 점프도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슬로프에서 내 방식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도전과 좌절

강현아 대리는 자신이 스노보드 고수로 불리는 이유로 ‘꾸준함’을 꼽았다. 스노보드에 입문한 후로는 매년 스노보드를 타러 다녔고, IBK에 입행한 이후에도 매년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해 주말마다 스키장



에서 시간을 보냈다. 심지어는 지점에서 리포터 활동을 할 때도 MT 장소로 스키장을 추천했고, 노조에서 주최하는 스키캠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스노보드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변에서는 강현아 대리를 스노보드 고수로 부르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스노보드 강사 자격증인 CASI(Canadian Association of Snowboard Instructors) Lv.2와 KSI(Korea Ski Instructors Association) Lv.1을 따내기도 했다. “CASI 자격증을 취득할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CASI 자격증은 레벨4까지 있는데 레벨2부터는 요구하는 라이딩 스탠다드와 티칭 스탠다드의 기준이 높아서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CASI 자격증 레벨 2를 딸 때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실제로 라이딩 세션에서 한 번 고배를 마신 뒤 평평 울기도

했었죠.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성격 때문에 강사 자격증까지 도전하게 되었는데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좌절의 쓴맛에도 강현아 대리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하기로 한 건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고집과 주변의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것. 그렇게 그녀는 결국 CASI Lv.2를 손에 넣게 되었다. 자격증을 취득했을 당시의 기쁨이 생생한지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캐나다 휘슬러에서 처음 파우더를 탔던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네요. 눈이 많이 와서 쌓인 눈을 파우더라고 부르는데, 관리되지 않는 비정설 슬로프에 파우더가 주로 많이 쌓여요. 그래서 휘슬러 지역의 현지인들은 주로 슬로프를 벗어나서 달리는 파우더런, 나무 사이를 달리는 트리런 같은 방법으로 스노보드



위험했던 일도 있었지만 덕분에 새롭게 배울 수 있었어요. 뭐든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를 즐깁니다. 당시 저는 초보였는데 겁도 없이 일행들을 따라 슬로프 밖으로 나갔다가 파우더에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파우더는 한 번 빠지면 팔다리가 눈속으로 계속 빠져들어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대로 해가 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속에서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인 뒤에 겨우 스키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기억이지만, 덕분에 파우더 타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뭐든 도전해봐야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취미

강현아 대리의 꿈은 전 세계 리조트를 모두 경험해 보는 것이다. 북미의 휘슬러, 유럽의 알프스 스키장, 뉴질랜드의 리조트 등 세계 곳곳의 유명한 리조트들을 점령해보고 싶다고. 동시에 건강한 몸으로 스노보드를 오래 즐기는 것도 목표다. 트릭이나 파크 등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하며 라이딩 실력을 좀 더 늘리고 싶지만,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니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다.

“함께 보드를 타는 크루가 있는데, 크루원들도 대부분이 다 강사들이고 보드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함께 공부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성장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 이번에 크루원들이랑 함께 캐나다 휘슬러로 원정을 가기로 했어요. 가서 파우더런, 트리런, 백컨트리 등 원 없이 즐기고 올 예 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스노보드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현아 대리의 이런 스노보드에 대한 사랑은 남편에게로 이어졌다. 남편과 처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취미를 묻는 남편의 질문에 스노보드라고 답했다. 그리고 남편에게 스노보드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 때문에 억지로 말 장구를 맞춰주고 스노보드를 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었다는 강현아 대리. 하지만 스노보드를 타는 날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 남편을 보며 안심했다. 그 이후로는 매년 겨울 남편과 함께 스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강한 취미생활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강현아 대리. 그래서 그녀는 IBK인들에게 스노보드를 강력 추천하고 있다고. 그녀의 즐거운 스노보드 생활이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도해본다.

IBK 업글인이 알려주는 골팅

①

스노보드도 준비운동부터

스노보드에 준비운동이라니 생소하겠지만, 겨울 스포츠는 추위로 몸이 경직되어 있어 준비운동이 더욱 중요하다. 준비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지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스노보드를 타기 20분 전에 무릎, 손목, 어깨 등 관절 위주로 스트레칭을 해주자.

②

나에게 맞는 코스 선택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언제나 위험하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부터 차근차근 연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활주로 중간에 멈춰야 할 때는 코스 가장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는 코스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충돌 위험을 피할 수 있다.

③

저체온증과 동상 주의

스키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저체온증이나 동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외에 오래 있다 보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으니 휴식을 병행하고, 증상이 의심될 때는 스키장 내에 있는 의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입이 즐거운

식도락 지도

IBK본점 인근 맛집



IBK기업은행의 맛집 전문가들이 모였다! 본점 직원들이 직접 추천한 IBK기업은행 본점 인근의 맛집들을 소개한다. 지도엔 즐겨찾기에 모두 저장해놓고 하나씩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클 편집실



7 고기 가득한 피자 더랜치브루잉

일반적인 피자는 저리 가래! 베이컨, 햄, 소고기 등으로 완전히 무장한 고기 가득 피자로 입맛 제대로 살려보자.

- △ 보스턴 올 미트 27,000원
멜로스톤 포테이토 25,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12길 11 시어소호텔 1층
- ☎ 02-2272-2060

5 을지로 대표 맛집 대련집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사골칼국수와 든든하게 배를 채워줄 보쌈, 비 오는 날 생각나는 파전까지 다양하게 즐겨보자.

- △ 사골칼국수 8,000원
생배추보쌈(소) 18,000원
- 📍 서울 종로구 종로16길 37
- ☎ 02-2265-5349



3 마늘 닭볶음탕 맛집 계림

35년이 넘게 마늘 닭볶음탕만 전문으로 하는 전통의 맛집으로 마늘을 넉넉히 올린 깊은 맛의 국물이 특징이다.

- △ 닭도리탕(소) 26,000원
닭도리탕(중) 38,000원
- 📍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4길 39
- ☎ 02-2263-6658



1 제주산 갈치 맛집 갈치호

제주에서 직접 잡아 온 제주 갈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 갈치구이부터 조림까지 취향껏 골라보자.

- △ 갈치구이 소 15,000원 / 갈치조림 10,000원
- 📍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22 2층
- ☎ 02-2285-5185



6 노포에서 즐기는 제육 맛집 대원집

절인 백김치에 철판에 볶은 제육볶음이 일품으로 다른 고기들도 높은 질을 자랑한다.

- △ 제육철판 10,000원
꽃등심(150g) 35,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0-4
- ☎ 02-777-2038



4 오늘 밤, 고기를 먹고 싶다면 너비집

명품 매운돼지갈비찜과 한우 숯불구이를 만나볼 수 있다. 맛집으로 소문나 예약은 반드시 필수다.

- △ 너비special 65,000원
차돌박이+더덕구이 set 29,000원
- 📍 서울 중구 명동9길 37-8
- ☎ 02-756-4084



8 얼큰한 감자탕 맛집 동원집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의 감자탕을 만나볼 수 있는 맛집. 식사부터 회식까지 어떤 식사에도 딱 알맞다.

- △ 순대국 7,000원
감자국(식사) 8,000원
- 📍 서울 중구 퇴계로27길 48 1층
- ☎ 02-2265-133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susia29)

9 품질 甲 라멘 레스토랑 **멘텐**

1인 세프로 운영되어 메뉴의 가짓수는 적지만 재료 하나 하나의 익힘과 조리 상태가 정교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에 오른 곳.

- △ 탄탄멘 10,500원
-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05 동북빌딩1층



11 다양한 스낵 전문점 **명화당**

떡볶이부터 우동, 돈까스, 국수, 쫄면까지 다양한 스낵 맛볼 수 있는 명동 스낵 맛집.

- △ 쫄면이 5,500원
냄비국수 6,800원
- 📍 서울 중구 명동4길 30 2층
- ☎ 02-777-7317



13 명동 설렁탕 맛집 **미성옥**

단골이라면 자주 다닐 정도로 그 맛이 깊고 진한 설렁탕과 수육을 맛볼 수 있는 숨겨진 명동 맛집이다.

- △ 설렁탕 11,000원
수육(소) 35,000원
- 📍 서울 중구 명동길 25-11
- ☎ 02-776-8929



15 분위기 좋은 파스타 맛집 **비폴로**

천연 재료만을 사용해 최고의 풍미를 뽑아낸 파스타와 소금과 이스트로만 오래 발효시켜 만든 빵.

- △ 엔초비 올리브 파스타 20,000원
오징어 먹물 리조또 21,000원
- 📍 서울 중구 명동10길 7-3
- ☎ 02-756-0908



10 수제 순대로 만든 순대국 **명품을지순대국**

속이 가득한 수제 순대와 알싸한 부추김치를 등복 얹은 순대국밥으로 얼큰한 국물이 일품이다.

- △ 순대국밥 8,000원
육개장순대국 9,000원
- 📍 서울 중구 충무로5길 31층
- ☎ 02-2268-7772



12 북어 해장국 맛집 **무교동북어국집**

을지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북어 해장국 맛집. 칼칼한 국물에 무한리필되는 국물과 밥은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다.

- △ 북어해장국 9,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1길 38
- ☎ 02-777-3891



14 수요일식회 출연 맛집 **부민옥**

양무침과 육개장이 유명한 맛집이자 수요일식회에 나올 정도로 입맛 까다로운 미식가들도 인정한 깔끔한 맛을 보여준다.

- △ 육개장 10,000원
양곰탕 11,000원
- 📍 서울 중구 다동길 24-12
- ☎ 02-777-2345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카운트93)

16 신선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비스트로 라콤마**

신선한 식자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는 다이닝 브랜드로 다양한 스타일의 음식과 200여 종의 와인이 준비되어 있다.

- △ 부러타 샐러드 22,000원
세비체 22,000원
- 📍 서울 중구 청계천로 85 지하1층
- ☎ 02-6255-9979



with IBK

17 충무로의 간판 맛집 **사랑방칼국수**

백숙 백반과 칼국수로 사랑받는 충무로의 명소로 뒷골목에 있는데도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 △ 칼국수 7,000원
닭곰탕 6,500원
- 📍 서울 중구 퇴계로27길 46
- ☎ 02-2272-2020

19 다양한 전골 맛집 **세림**

깊은 맛의 국수전골과 곰창전골, 징기스칸 샤브샤브까지 다양하고 맛있는 전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맛집이다.

- △ 국수전골 20,000원
곰창전골 21,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1길 32-3
- ☎ 02-319-4603



21 일본식 스키야끼 맛집 **아게루**

을지로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일본식 샤브샤브와 스키야끼 맛집이다.

- △ 샤브샤브소고기+카레우동 13,000원
스키야끼소고기+수란간장우동 14,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8
- ☎ 070-4103-0069



23 자부심 넘치는 라멘 맛집 **오카구라 라멘**

정통 이자카야와 함께 라멘도 팔고 있는 맛집으로 라멘 외에도 꼬치구이나 모듬회를 전문적으로 팔아 화석 장소로도 제격이다.

- △ 돈코츠라멘 11,000원 / 미소라멘 12,000원
-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82 신영빌딩 지하1층
- ☎ 0507-1349-4977



18 뜨끈한 손만두 전골이 맛있는 **성경만두요리전문점**

속 재료 알찬 매일 빛은 생만두로 만든 손만두전골은 잡냄새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 △ 손만두 8,000원
양곰창만두전골 38,000원
- 📍 서울 중로구 수표로 88
- ☎ 0507-1363-9234



20 줄서서 먹는 쌀밥 맛집 **수정식당**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의 쌀밥으로 식사 시간에는 항상 줄 서서 기다리는 싱싱한 쌀밥 맛집이다.

- △ 쌀밥 9,000원
삼겹살 13,000원
- 📍 서울 중로구 삼일대로20길 15
- ☎ 02-2279-431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Candy Eiden)

22 역사가 있는 중식당 **안동장**

3대째 가업을 이어가며 옛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굴짬봉 맛집으로 기호에 따라 시원한 맛과 매운맛으로 골라 먹을 수 있다.

- △ 간짜장 9,000원
굴짬봉 11,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 124
- ☎ 02-2266-3814



24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 **용두동쭈꾸미닭갈비**

쭈꾸미정식과 닭갈비정식이 일품이며, 쭈꾸미와 닭갈비를 섞은 '쭈닭'은 용두동쭈꾸미닭갈비의 베스트셀러다.

- △ 닭갈비정식 8,000원
쭈꾸미정식 8,500원
- 📍 서울 중로구 수표로18길 6-4
- ☎ 02-2274-217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탱글이7376)

25 돼지고기 짬뽕 맛집
원흥

진한 국물 자랑하는 돼지고기 짬뽕과 바삭하고 속이 꽉찬 고기튀김으로 식사로도 해장으로도 제격이다.

- ☎ 짬뽕 9,000원
고기튀김(중) 30,000원
- 📍 서울 중구 다동길 46
- ☎ 02-3789-3624



원흥 짬뽕 (본점)
서울 중구 다동길 46

26 제대로 된 설렁탕
이남장

깊고 담백한 국물의 설렁탕과 내장탕으로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설렁탕에 빠질 수 없는 아삭한 김치는 덤이다.

- ☎ 설렁탕 12,000원
내장탕 13,000원
- 📍 서울 중구 삼일대로12길 16
- ☎ 02-2267-4081



27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돼지 맛집
전주집

질 좋은 냉동대패삼겹살을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많은 IBK인 사이에서 이미 대표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 ☎ 목삼겹살 13,000원
생삼겹살 15,000원
- 📍 서울 중구 수표로 48-18
- ☎ 02-2268-6631



28 두툼한 후토마끼 맛집
진작

질 좋은 재료를 이용해 일식을 베이스로 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푸짐한 후토마끼를 시그니처로 다양한 덮밥류를 선보이고 있다.

- ☎ 진작후토마끼 16,900원
대창덮밥 15,900원
- 📍 서울 중구 수표로12길 12
- ☎ 0507-1364-4484



29 점심도 저녁도 든든한
참숯늑간

점심에는 저렴한 가격과 칼칼한 국물의 김치찌개를, 저녁에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갈비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전천후 대표 맛집이다.

- ☎ 김치찌개 9,000원 / 소갈비살 18,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12길 29
- ☎ 02-2275-4671



30 제철 맛은 도다리썩국 맛집
충무집

시원한 국물 자랑하는 도다리썩국과 신선한 멥게비빔밥, 부드러운 갈치조림까지 한 상에 펼쳐놓고 먹는 로컬 맛집이다.

- ☎ 도다리썩국 22,000원 / 갈치조림 16,000원
- 📍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0-14
- ☎ 02-776-4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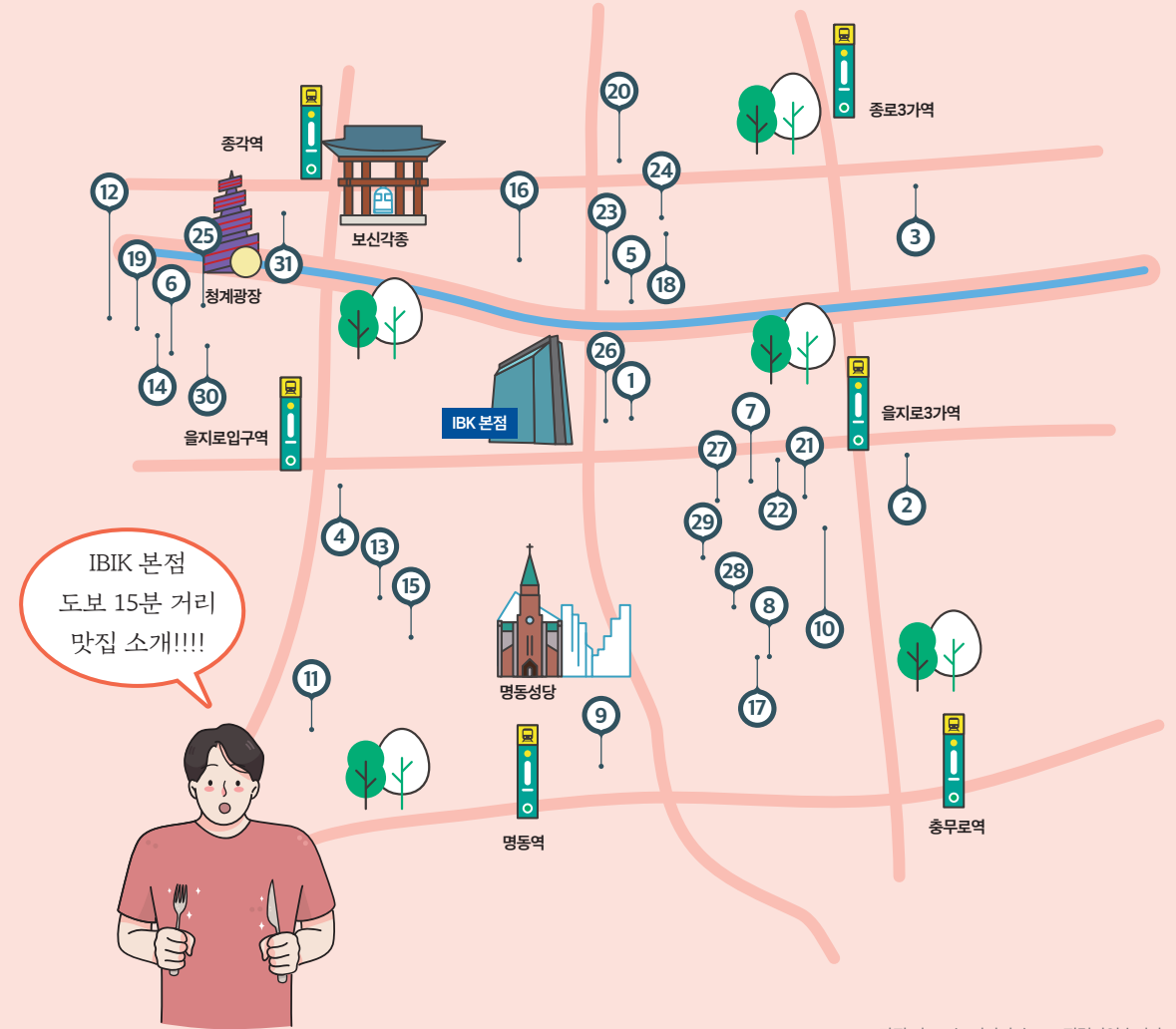
31 절대 후회 없는 전통음식 맛집
토속정

홍어삼합, 민어회, 산낙지, 갈치조림 등 10여 가지 반찬과 함께 즐기는 전통 남도 음식과 함께 깊은 바다의 향기를 느껴보자.

- ☎ 홍어삼합 80,000원
방어회 90,000원
-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11층 토속정
- ☎ 02-720-2192



IBK본점 인근 맛집 리스트



※ 맛집 리스트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1. 갈치호	9. 멘텐	17. 사랑방칼국수	25. 원흥
2. 경일옥 찢제리아	10. 명품을지순대국	18. 성경만두	26. 이남장
3. 계림	11. 명화당	19. 세림	27. 전주집
4. 너비집	12. 무교동북어국집	20. 수정식당	28. 진작
5. 대련집	13. 미성옥	21. 아게루	29. 참숯늑간
6. 대원집	14. 부민옥	22. 안동장	30. 충무집
7. 더랜치브루잉	15. 비폴로	23. 오키구라 라멘	31. 토속정
8. 동원집	16. 비스트로 라콤마	24. 용두동쭈꾸미닭갈비	

첫 해가 뜨는 길

강릉

GANGNEUNG

1월에는 해 뜨는 예향(藝鄕)의 고을 강릉으로 떠나보자. 강릉의 터주대감 격인 바우길이 거미줄처럼 나 있고, 해파랑길이 지나다. 특하면 폭설이 내리는 선자령에서는 설경, 바다에서는 일출을 만날 수 있다. 이글이글 뿜어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다시 뜨겁게 한 해를 시작하자.

글, 사진 진우석

일출 그리고 경포호 한 바퀴, 해파랑길 39코스

강릉에서 일출 맞기는 강문해변이 제격이다. 주변에 숙소가 많아 아침 산책으로 가볍게 걷기 좋다. 강릉의 바다는 날이 추울수록 검푸른색으로 일렁거리는데, 특히 일출 전이 가장 아름답다. 붉은 띠가 수평선에 걸린 일출 전의 적막한 순간은 태초의 시간처럼 아득하다. 시나브로 해가 봉긋 떠오르면 순식간에 만물을 비추고, 따뜻한 아침 해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도 빛이 난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뜨는 해를 바라보며 손을 잡아보자.

강문해변에서는 경포호가 지척이다. 잔잔한 호수에 철새들이 한가롭게 떠있는 모습이 평화롭다. 호수 건너 어깨동무한 장정들처럼 백두대간이 흘러간다. 선자령에서 황병산으로 이어진 능선이 눈을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은 강릉만의 겨울 풍경이다.



01

경포호에서 꼭 들려봐야 할 곳을 묻는다면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이라고 답하고 싶다. 울창한 숲속 안으로 들어서면 오래된 한옥 건물인 허균·허난설헌생가가 나온다. 허균은 <홍길동전>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의 누이 허난설헌은 비운의 천재로 뒤늦게 알려졌다. 난설헌은 시대를 잘못 만나 재능을 피우지 못하고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시는 명나라 시인 주지번이 중국에서 간행한 <난설헌집>으로 극찬을 받았고, 일본에서도 널리 애송됐다. 허난설헌의 시 구절을 되새기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느새 경포호를 한 바퀴 돌아 경포대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겨울왕국 선자령, 바우길 선자령풍차길

선자령은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 중 하나다. 대관령에서 선자령까지 눈부신 설경이 펼쳐진다. 출발점인 옛 대관령휴게소를 떠나면 곧 국사성황사를 만난다. 대관령 산신을 모시는 유서 깊은 공간으로 강릉단오제가 여기서 시작한다.

국사성황사를 지나면, 길은 어머니의 품속으로 고개를 묻는 아이처럼 산속으로 파고든다. 거대한 전나무가 사라지면 자작나무 군락지를 만난다. 눈부신 흰 나무껍질을 가진 자작나무는 눈과 어울려야 제맛이다. 자작나무가 참나무로 바뀌면서 숲의 호젓함은 절정을 이룬다.

능선에 올라서자 풍력발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 넓은 임도가 따르면 평퍼짐한 선자령 정상에 닿는다. 북쪽으로 곤신봉, 매봉을 지나 소항병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 능선에는 하얀 풍차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능선 오른쪽으로는 시퍼런 동해가 찰랑거린다. 흰 능선과 풍차, 그리고 푸른 바다의 빛깔이 잘 어울린다.

하산은 남쪽 능선을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오면 된다. 새봉전망대에 서면 푸른 바다를 거느리는 강릉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유장하게 흘러가는 남대천과 경포호를 보고 있노라면 “아~ 강릉에 가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겨울 항구의 매력, 주문진항

겨울 주문진항을 제대로 보려면 이른 아침에 찾는 것이 좋다. 조업 나간 어선이 들어오면 항구는 분주해진다. 경매장 바닥에는 복어, 임연수어, 도치, 대구 등이 눈을 깜빡깜빡 뜨며 새 주인을 기다린다. 경매 입찰표에 값을 적는 중매인의 표정이 자못 진지하다. 오징어는 배 앞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펄떡펄떡 뛰는 오징어를 직접 가져간다. 입찰표를 머리에 단 문어 한 마리가 탈출해 바닥을 기어보지만 곧 잡히고 만다. 주문진항은 살아 있다. 추울수록 겨울철 항구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2023년, 새해가 뜬 강릉 여행은 어부들의 삶이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항구에서 마쳐본다.

- 01 겨울 경포호는 푸른 물과 백두대간의 흰 눈이 어우러진다
- 02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선자령 정상
- 03 눈이 많이 내리는 선자령은 겨울철 설경 트레킹 코스로 인기다



02



03

해파랑길 39코스 바우길 05구간



강릉 해파랑길은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통일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산책 코스로, 걸음걸음 동해와 호수의, 해상송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중 39코스 바우길 05구간은 총 길이는 16.1km로 가벼운 걸음으로 5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경사가 낮아 산책 난이도는 쉬운 편이다.



솔바람다리를 시작으로 허륜, 허난설헌 기념관과 경포대를 거쳐 사천진 해변에 이르는 길

붉은 여명 깃드는

사막의 길

이집트

이집트 사막의 길은 아득하다. 지평선에 여명이 깃들면 바람과 숨결만이 적막한 모래평원 위를 가르다. 백사막을 품은 바하리야는 '북쪽 오아시스'라는 뜻을 지녔다.

글, 사진 서영진

사막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모래바람을 가르며 7시간을 달려온 것은 사막에서의 경이로운 일출을 맞이 위해서다. 세계 각국의 캠핑족들은 이집트 바하리야에서의 하룻밤을 꿈꾸며 백사막을 찾는다. 카이로에서 300km, 아득한 사막 도로 끝자락에 바하리야의 주거지 바위티는 신기루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90년대 중반 '황금 미라의 계곡'이 발견되면서부터 사막마을 바위티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위티에서 파라프라 오아시스로 향하는 길목에 백사막, 흑사막은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다.

지붕에 음식과 양탄자를 실은 사륜 구동차들은 검은소를 거치고 사막의 자욱한 먼지와 모래 수렁을 헤쳐 나간다. 동행하는 베두인족의 몸가짐은 예사롭지 않다. 여행자들이 갈증에 물을 찾을 때, 유목민의 후예들은 차량 바퀴부터 점검한다. 예부터 사막 이동 때 낙타의 안위가 중요했듯, 베두인족에게 사륜구동차는 목숨과 연결되는 소중한 반려자다.

이집트 바하리야 사막

EGYPT BAHARIYA

바하리아의 외딴 길, 낮선 하룻밤

지프차들은 사막 위에서 그들만의 도로표시판을 따라 달린다. 흰 모래 줄기와 작은 자갈은 이정표가 되고 길이 된다. 사막에서는 홀로 이동하는 차량은 드물다. 두 대 이상의 차량이 한조를 이뤄 움직인다. 땀별 아래 사막을 질주하는 지프차들을 여럿 보았고 그들은 어김없이 흰 사막 위에 짐을 풀었다.

모래벌판을 오르내리는 여정은 낮선 체험의 시작에 불과하다. 캠핑족들이 하나둘 찾아드는 곳은 바하리아의 백사막이다. 석회암들이 굳어져 만든 백사막은 누런 빛깔의 대평원 위에 거대하고 투박한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하다. 태양의 높이에 따라 백사막의 색깔은 세상과 몸을 맞춘다. 청아하게 빛나던 흰 기둥들은 해 질 무렵이면 발그레하게 변장을 한다. 사륜구동차들은 밤이 되면 바람막이용 텐트로 용도가 바뀐다. 불을 지피고 수프를 끓이면 사막에서의 조촐한 만찬이 비로소 시작된다.



사막 위 베두인 청년들은 대부분 보안 맨발이다. 백사막에서는 사막여우가 나온다. ‘어린왕자’에서 만났던 동화 속 사막여우다. 커다란 귀를 지닌 여우는 음식물 냄새를 맡고 다가서 천연덕스럽게 모닥불 옆에 선다.

사막 위 경이로운 일출과 흑사막

지평선마저 흔적을 감추면 사막에는 정적만 남는다.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에는 별뿔별이 떨어진다. 이곳에서는 의도하지 않아도 감동의 여운 때문에 밤을 뒤척이게 된다. 산악 캠핑 때 밤새도록 무용담과 거친 농담을 늘어놓았다면 사막 캠핑에서는 옛된 추억, 잔잔한 여운의 담소가 어울린다. 모닥불 소리만큼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읊조려도 좋다. 말을 뱉어내도 모래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흥가분한 느낌이다. 텐트 밖, 별빛 아래 노숙을 결정한 베두인 청년들만이 간간히 헛기침을 해댈 뿐이다.

새벽녘의 가느다란 바람과 열은 여명이 잠을 깨운다. 붉은 기운은 경배와 찬미의 시간과 함께 찾아든

다. 한 낮에 사막도로 옆 간이 휴게소에서 기도를 올렸던 베두인들은 또 한 번 몸과 머리를 낮춘다. 사막에서 잉태된 존재가 아니더라도 소원을 빌면 무엇이 이뤄질 듯하다. 컷가에 웅얼거리는 읊조림과 고즈넉한 풍광에 마음은 거룩해진다.

바하리아의 백사막은 흑사막과 어우러져 색의 대비를 이룬다. 모래 길 끝자락에 위치한 흑사막 봉우리들은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낮은 야산들의 행렬 같기도 하다. 바하리아의 흑사막은 백사막과 다가서는 느낌이 다르다. 모래에 철분이 뒤섞여 검은 빛을 띠는 흑사막은 거칠고 눅눅하다. 흑사막 봉우리에 오르면 사막을 가로지르는 한 줄 외길만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유목민들의 젓줄 역할을 했던 아인 일 이즈 온천도 스쳐 지난다. 세상과 사막을 연결하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카이로로 향하면 기자지구의 피라미드와 연결된다. 태양의 재주를 사막에서 본 듯한데, 100m가 넘는 거대한 파라오의 피라미드들도 빛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사막의 길을 따라갔던 여행은 아라비안나이트의 오랜 꿈과 교감한 듯,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바하리아 백사막 흑사막 길



카이로 서남쪽 약 300km에 위치한 사막위의 길로 바하리아의 오아시스인 바위티 마을을 출발해 30km가량 이어진다. 화산활동과 침식작용으로 형성된 기이한 사막지형인 백사막, 흑사막을 연결하며 사막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TIP. 지구를 생각하는 여행

바하리아에선 차량 이동 시 모래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길로만 이동해야 한다. 백사막에서는 모래화석에 낙서를 해선 안된다.

광주의 진산, 무등산에 올라 새해 다짐을

외치다

새해를 맞아 호남지역본부 관내 영업점 직원들이 모여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에 올랐다. 이들은 산 아래 광주시내를 내려다보며 각자의 새해 다짐을 외치며 2023년을 맞이했다.

글 엄세권 사진 김성재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1
구령에 맞춰
다같이 준비
운동을 하는 IBK의
산악인들

포근한 어머니의 산, 무등산

무등산은 예부터 광주의 진산이자 포근한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려왔다. 광주를 배후에서 감싸고 있으며, 동서남북 어디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모나지 않아서 그렇게 불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하기만 한 산은 아니다. 해발 1,187m의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광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인근에 위치한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오전 8시 30분, 습기를 머금은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시기도 전에 등산복 차림의 IBK인들이 원호사 주차장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근황을 묻는 이들. 이날 참가 신청을 한 IBK인들은 호남지역본부 관내 영업점 직원들이다. 호남지역본부는 순환 근무로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족처럼 친밀해보인다. “식사는 하셨어요? 자자, 이거 하나씩 받으세요!” 이번 IBK산에 참가 신청서를 보낸 광주첨단지점 임동민 과장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먹거리를 꺼내 동료

02 이날의 등산로인 무등산옛길
03 광주의 어머니산이라 불리는 무등산은 숲이 울창하다



들과 취재진에게 나누어주었다. 투명한 비닐봉투에는 아침으로 먹을 김밥과 산행 중에 먹을 물, 그리고 이런저런 주전부리가 담겨 있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로 동료들은 등산에 앞서 출출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호남지역본부

이날 모인 IBK인들은 매년 1월 1일이면 함께 모여 무등산 서석대를 올랐다고 한다. 다만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산행을 하지 못했다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서석대에 오르게 되니 어쩐지 다들 조금 기분이 들떠있는 것 같았다. 이날 참가한 IBK인들은 무등산 옛길 2구간을 오르기로 했다. 오르게 된 무등산 옛길은 옛사람들이 광주 도심에서 원호사를 거쳐 서석대까지 오르던 길을 복원한 길이다.

오늘은 빠르게 정상에 오르기 위해 원호사 주차장에서 시작해 서석대까지 오르는 단거리 코스를 선택했다. 짧은 코스인 만큼 경사가 높아 쉬운 산행은 아니다. 등산화에 등산스틱, 단단하게 준비를 한 IBK인들은 준비 운동을 시작했다. 군대에 있을 때 조교를 했었다는 평동공단지점 나병현 대리가 나서서 구령을 외치며 준비 운동을 하는 가운데 10살 남짓의 아이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바로 광주첨단지점 송종영 대리 의 아들이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만 아이와 동반했지만, 다른 동료분들도 가족과 함께 등산을 즐기곤 합니다. 또 등산이 끝난 후에는 동료와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단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구입했다는 뽀뽀한 새 등산화를 신은 송연준 군은 아빠와 등산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고 씩씩하

04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걷는 IBK인들





05

05
이날 참가한
IBK인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06
무등산의
화룡정적인
서석대

07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화기애애한 모습

08
송종영 대리와
아들 송연준 군

계 산을 올랐다. 열심히 오르다가도 잠시 쉬 때면 아
빠 곁을 떠나지 않는 ‘아빠 껌딱지’ 송연준 군과 송종
영 대리의 모습을 보니 평소 호남지역본부 직원들이
얼마나 화목한지 알 수 있었다.

‘나’가 아니라 ‘우리’가 오르는 산

지난 가을, 무등산 옛길에 떨어진 낙엽들은 새벽에
내려앉은 이슬을 머금고 반짝거리고 있었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간혹 뒤돌아볼 때면 아름다운 절경
이 펼쳐졌다. 출발 지점에서는 날씨가 제법 쌀쌀했
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외투가 무거워졌다.
이번 산행의 주인공들은 능숙한 산악인이었다. 취재
진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호남지역본부 관내
영업점 직원들은 가파른 산행임에도 힘든 기색 없이
도란도란 동료들과 담화를 나누며 발걸음을 옮겼다.
“호남지역본부 관내 영업점 직원들이 함께 모여 등
산을 한 것이 벌써 9년째네요. 처음에는 산을 좋아
하는 직원들이 등산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함께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
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고 있죠.”
나주혁신도시지점 강명석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
번 산행에 동참한 직원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것도 서
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06

호남지역본부
관내 영업점
직원들은 매년 1월
1일 무등산 서석대를
오르는 전통이 있다.



07



08



09



10

09 힘차게 내년을 기약하는 IBK인들
10 산등성이가 켜켜이 쌓인 무등산의 풍경
11 무등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중봉

등산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나이도 성별도 상관 없이 모두가 산행의 동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로 함께 산행을 하는 직원들의 나이와 성별이 다양했다.

힘겨운 등산 뒤 가벼운 하산

이런저런 담화를 나누며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광주시내가 발아래에 펼쳐져 있었다. 바로 서석대에 도착한 것. 서석대는 무등산 최고봉인 천왕봉의 남서쪽에 위치한 천년기념물 주상절리대다. 일반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인데, 깎아지른 듯한 단면이 절경을 이룬다. 서석대에 오르자 직원들은 익숙한 듯 한곳에 모여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저희는 매년 1월 1일 첫 산행으로 항상 서석대를 올랐습니다. 무등산에서 오를 수 있는 등산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이지요. 올해는 이렇게 멋진 사진과 영상으로도 기록을 남기니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광주지점 나병선 차장은 밝은 얼굴로 설명을 해주었다. 서석대 정상석 앞에서 직원들은 “2023년 IBK 파이팅!”을 외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약했고, 또 서로 기념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정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직원들은 준비해온 초코바와 꿀로 기력을 보충하면서 하산을 준비했다.

“자, 여기서 이리저리 말고 등산로 입구 식당에 백숙 예약해놨으니까 빨리 가자고!”

일곡지점 강일구 팀장의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이 밝아진다. 역시 산행도 인생도 힘겨운 등산 뒤에는 가벼운 하산이 이어지는 법인가보다. 오늘 산행에 참가한 IBK인들은 즐거운 점심 식사를 기대하면서 하산길에 올랐다.



11

무등산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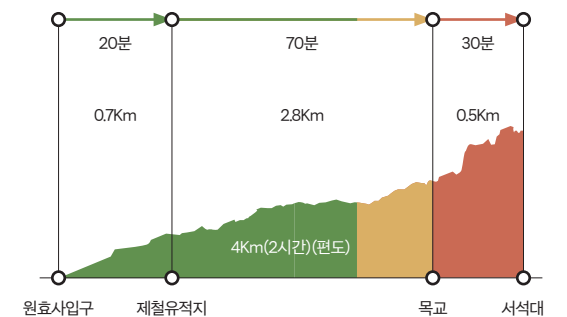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코스 원효사~서석대(4km)

입산 시간 하절기(3~11월) 오전 4시부터 17시
동절기(12월~2월) 오전 4시부터 16시

문의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062-227-1187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IBK 설날은 오늘이래요!



복주머니 떡케이크 만들기

가산패션타운지점
권채운 대리

어릴 때 해본 생소한 경험은 세월이 흘러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부모들은
더 많은 것을 체험시켜주고 싶다. 이날 버킷리스트에
참가 신청을 한 권채운 대리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은 어머니였다. 권채운 대리의
따뜻한 버킷리스트 체험기를 전한다.

글 염세권 사진 이대원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설날 맞이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말한다. 평소 ‘죽기 전에 여기는 꼭 가봐야지, 이건 꼭 해봐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데, 막상 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좋은 것들은 무수히 많다. 크게는 해외 여행이나 비싼 음식을 먹어보는 것부터 시간만 내면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까지. 스스로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버킷리스트의 소원들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금만 시간을 내고, 마음을 먹으면 생각보다 쉽

게 이뤄내거나 경험해볼 수 있는 것들도 많다. 이날 버킷리스트에 참가 신청을 한 권채윤 대리도 사소하지만 막상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어 <with IBK>에 연락을 했다. 권채윤 대리의 버킷리스트는 자녀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것. 마침 새해를 맞아 ‘설날 맞이 보자기 떡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했다. 권채윤 대리 가족이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하기로 한 날. 하얀 백설기처럼 소복하게 눈이 쌓였다. 마치 가족들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를 위해 하늘이 준비한



것 같다. 보드득 보드득 소리를 내며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찬바람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한 아이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날의 주인공인 권채운 대리 가족이었다.

의젓한 첫째 상우가 만든 백설기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참가 신청을 했다는 권채운 대리의 가족은 총 4명이었다. 남편 한동수 씨와 8살 첫째 아들 한상우, 5살 둘째 아들 한상현까지. 상우는 첫째라 그런지 나이에 비해 의젓했다.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었다.

“평소 아이들과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는 편입니다. 쉽게 접하기 힘든 아이스 하키나 이런저런 DIY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했어요. 오늘은 떡케이크를 만들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잘 해줄지 걱정이네요.”

막상 떡케이크 만들기가 시작하자 권채운 대리의 걱정은 달리 아이들은 떡케이크 만들기에 열중했다. 의젓한 첫째 상우는 평소 그림 그리기나 클레이를 즐겨서 그런지 유달리 관심을 많이 보였다. 떡케이크 만들기의 첫 과정은 바로 눈처럼 하얀 백설기를 만드는 것이다. 백설기를 먹어보기만 했지 만드는 것은 본 적도, 직접 만들어 본 적도 없었던 가족들은 강사의 설명을 유심히 들으며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쌀가루에 물을 넣어 비비듯이 반죽을 하고, 채에 거른 뒤 설탕을 넣고 동그란 케이크 모양의 틀에 담았다. 그리고 찜통에 넣으면 끝.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한 첫째 상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찜통을 바라보며 떡이 완성되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20여분이 지나 뚜껑을 여니 하얀 백설기가 완성됐다.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 IBK버킷리스트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평소에도 아이들과 아이스하키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케이크

“엄마, 이건 뭐야?”

아직 어린 둘째 상현이는 호기심 대왕이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게 뭐야?’하고 묻기 바쁘다. 떡케이크 만들기 강사가 준비한 색색깔의 고명을 보더니 다시 질문이 터졌다. “이게 뭐야~?” 상현이의 질문에 강사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

“이건 떡 위에 보자기 모양을 만들어주는 고명이예요.”

흰색 콩을 당처리해서 만든 앙금에 식용 색소를 넣어 보자기 모양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고명을 편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엔 아빠가 나섰다. 반죽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밀대로 밀어주었다. 힘이 센 아빠는 단번에 반죽을 펴고, 아이들은 보자기 모양의 틀로 고명을 찍어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작업이에요. 고명 위에 금가루로 나비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

반짝반짝 예쁜 금가루를 나비모양의 형틀에 발라 고명에 찍어내자 어느새 예쁜 보자기가 되었다. 권채운 대리는 아이들이 만든 보자기를 하얀 백설기 위에 올려 모양을 내주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화룡점정, ‘복’이라는 글자가 쓰인 고명을 아이들과 함께 보자기 위에 올렸다.

“완성이다!”

아빠와 엄마가 외지차 아이들이 함께 박수를 쳤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떡케이크는 권채운 대리의 걱정은 달리 예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둘째 상현이가 장난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주어서 기뻐요. 첫째 상우도 즐겁게 참여한 것 같아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떡케이크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한 떡집의 이름은 ‘따뜻한 케이크’다. 그 이름처럼 이날의 버킷리스트 체험은 추운 날씨를 잊을 만큼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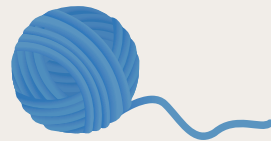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한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두툼한 실로 만드는

따뜻한 자이언트 안가방

부산지역본부 6인의
원데이 클래스 체험



조용한 부산지역본부가 시끌벅적해졌다. 3층 회의실에서 6명의 직원들과 IBK핸드메이드가 진행된 것. 이날의 클래스는 바로 자이언트 안가방 만들기. 직원들은 올 겨울 가장 핫한 패션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보면서 즐거운 추억도 쌓을 수 있었다.

글 엄세권 사진 박시홍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Giant Yarn



오늘은 회의실이 아닌 원데이 클래스 교실!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따듯한 코코아, 이불 속에서 먹는 쿨, 뜨개질로 만드는 목도리와 스웨터 같은 것들. 특히 직접 뜨개질을 해서 만드는 목도리나 스웨터는 모양이 투박하더라도 정성이 더해져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더 따듯한 것만 같다. 이번에 진행된 원데이 클래스는 뜨개질 수업으로 진행됐다. 다만 일반적인 실이 아니라 손가락보다 두꺼운 '자이언트 양'이라는 실을 재료로 가방을 만들기로 했다. IBK핸드메이드에 참가 신청을 한 6명의 부산지역본부 직원들이 회의실에 둘러앉았다. 각자가 신청한 다양한 색깔의 자이언트 양을 받아든 직원들은 신기한 듯 실을 만져보았다. 생각보다 크고 두툼해서

"이걸 어떻게 뜨개질을 하지?" 하고 물어보기도 했다. 직장 동료들과 연말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참가 신청을 한 부산지역본부 금태이 대리는 신이 난 듯 동료들에게 자이언트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때 초청받은 강사님이 도착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오늘 자이언트 양 가방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이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6명의 직원들은 기대에 부풀 듯 박수를 쳤고, 강사님은 웃으면서 자이언트 양을 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자이언트 양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진행될 수업에 대한 짧은 설명을 직원들은 마치 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다.



학생 때로 돌아간 듯 열심히 참여한 수업

자이언트 안은 바늘이나 다른 도구 없이 오직 실과 손만으로 뜨개질을 하는 핸드니팅 뜨개질이다. 안 쪽이 솜으로 도톰하게 채워져 있어 가방, 쿠션, 매트, 모자 등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솜으로 두툼하게 채워져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인기가 많아져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강사님의 수업을 가장 먼저 첫 매듭을 짓는 것부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짧은 쪽 실을 긴 실 위에 올리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긴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직원들은 강사님의 첫 마디부터 이해하기가 어려웠는지 서로 옆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훑쳐보기 바빴다.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강사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실습을 해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다시 같은 방식으로 긴 실을 빼주면서 사슬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바닥코를 6개 만들면 바닥이 완성됩니다.” 강사님이 시범을 보이자 어느새 파배기 모양의 실 뭉치가 만들어졌다. 직원들은 강사님을 따라 열심히 모양을 만들어보았다. 제법 그럴듯한 모양을 만드는 직원도 있었고,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는 직원도 있었는데, 강사님이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모양을 잡아 주어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참가 신청을 했던 금태이 대리는 생각보다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동안 제가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만이었나 봅니다.” 멋쩍게 웃은 금태이 대리는 다시 수업에 진지하게 참여했다.



빨간색, 파란색, 완성된 가방이 너무 예뻐요!

어느덧 바닥이 완성되자, 다시 실의 긴 부분을 아래로 넣어주면서 사슬 모양의 매듭을 만들어주었다. 이 매듭을 다시 2층, 3층으로 쌓다 보면 가방의 옆면이 완성된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뜨개질이라 그런지 매듭을 하나 빼먹어서 다시 푸르거나, 양쪽의 크기가 다르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은 강사님을 호출해 도움을 받았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얼추 가방의 모양이 만들어져가고 있었다. “이제 바닥을 잡고 거꾸로 뒤집어주세요.” 직원들이 작은 탄성을 내질렀다. 지금까지 바깥쪽이라고 생각했던 면이 가방의 안쪽이었던 것이다. 뜨개질을 자주 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과정이지만 오늘이 첫 경험인 이들에게는 신기한 일이었다. “이제는 가방의 끈을 만들 거예요. 끈 길이는 너무 길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으니 적당한 길이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강사님의 가이드에 맞춰 하나둘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가방이 완성되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형형색색의 완성된 가방을 들고 마치 어린 아이처럼 기뻐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입가에 미소가 진다. 이제 클래스를 마칠 시간. 강사님과 인사를 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IBK핸드메이드를 통해 귀여운 겨울용 가방이 생긴 부산지역본부 6명의 직원들. 가방을 직접 쓰진 않더라도 즐거운 체험을 함께한 동료들 덕분에 올겨울은 보다 더 따뜻하지 않을까?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동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늘 없이 손으로만 가방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오늘 완성한 가방은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할 겁니다!



부산지역본부
최정우 과장

동료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IBK핸드메이드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재미있게 참여 해주어서 무척 뿌듯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참가해보고 싶습니다!



부산지역본부
금태이 대리

우리 팀원인 금태이 대리의 추천으로 IBK핸드메이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잘 나와서 만족스럽네요.



부산지역본부
배진호 팀장

저도 몰랐던 저의 재능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훗날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with IBK>에도 감사드립니다!



부산지역본부
송준선 팀장

생전 처음으로 제 손으로 가방을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웠는데 강사 분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가방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네요.



부산지역본부
남건욱 과장

지난 여름 취미로 뜨개질을 했었는데, 바늘 없이 손만으로 뜨개질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방 하나를 똑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부산지역본부
이지영 대리

자이언트 안



자이언트 안은 2022년 쇼핑몰 에이블리에서 공개한 올해의 히트상품 검색어 1위를 차지한 패션 아이템이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굵은 뜨개실을 뜻하는 자이언트안은 기본 지름 2cm의 통통한 면사나 폴리에스테르 소재부터 2.5~3.3cm를 넘어가는 벨벳 소재까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뜨개바늘이나 여타의 도구가 필요 없이 맨손으로 실만 엮어서 말거나 돌리고 매듭만 지으면 가능한 방식이라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기 좋은 방식, 쿠션, 러그를 비롯해 도어매트, 반려동물 침대 등도 만들 수 있다.



자이언트 안 TIP

귀엽고 산뜻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일반 실을, 고급스럽고 따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벨벳 실을 선택할 수 있다.

이항복의

* 소원

어린이 위인전에서 권율 대감의 방문에 주먹을 넣은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유명한 이항복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의 깊이가 또래와 달랐다. 이조판서, 예문관 대제학, 우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 이항복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글 엄세권 일러스트 백정석



권율은 자신의 방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불쑥 넣고는 “이 손은 누구 손입니까” 하고 물었던 이항복의 품행이 더 알고 싶어 그가 있는 서당을 찾아갔다. 권율이 왔다는 것을 눈치챈 학동들은 옷차림과 몸가짐을 정돈하고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항복만이 신경도 쓰지 않은 채 편하게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권율은 학동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나 물었고, 학동들은 ‘고관대작이 되어 영예를 누리고 싶다’, ‘천군만마를 거느린 장군이 되고 싶다’ 등의 소원을 말했다. 다만 이항복만은 아무런 소원이 없다고 말했다. 궁금증이 생긴 권율이 소원을 재차 묻자 이항복은 “쇠짚신 한 짚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권율이 황당해하며 왜 하필 쇠짚신이나 물으니, 이항복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어른신의 입에 넣어서 그 입을 좀 다물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벼슬을 지내고 있는 권율에게 버르장머리 없는 말이었지만, 이항복의 말에는 큰 뜻이 담겨 있었다. 바로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남의 소원을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뜻이자, ‘당신이 내 소원을 안다고 해도 이뤄줄 수 없을 정도로 내 그릇이 크다’는 뜻이기도 했다. 권율은 이항복의 말에 감탄했고, 이항복은 후에 권율의 사위가 되었다.

이항복

조선 선조 때의 문신(1556~1618). 자는 자상(子常). 호는 백사(白沙)·필운(弼雲). 임진왜란 때 병조 판서로 활약했으며, 뒤에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광해군 때에 인목 대비 폐모론에 반대하다 북청(北靑)으로 유배되어 죽었다. 저서에 ≪백사집(白沙集)≫, ≪북천일기(北遷日記)≫, ≪사례훈몽(四禮訓蒙)≫ 등이 있다.

새롭게 찾아오는 설날 변화가 만들어낸 풍경



어느덧 2023년이 되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 가족 또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새롭게 설날 나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명절을 지내는 모습들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설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자.

✎ 편집실



비대면으로 가족과 만나다 명절 홈족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홈족(Home族)’이라는 신흥세력이 떠오른 지 시간이 꽤 흘렀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음에도 홈족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홈족은 식사와 여가 등 모든 일상을 집에서 영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간접적 경제활동을 펼치는 ‘홈코노미(Home+Economy)’나 피트니스 센터에서나 볼 법한 다양한 운동기구를 집에 마련해 운동을 즐기는 ‘홈짐(Home+Gym)’과 같은 신조어도 생겨났다.

이런 홈족들의 증가는 이제 명절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다. 홈족들은 더이상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집에서 명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홈족들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 많은 양의 음식을 할 일도 없고, 명절마다 겪는 교통체증 등 다양한 스트레스부터도 빠져나갈 수 있다. 비대면으로 생긴 여유와 함께 홈족들은 스스로에게 명절맞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명절맞이 음식을 요리해 먹기도 하는 등 각자의 색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명절을 기념한다.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고 가족과 교류를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명절 풍경 가운데 하나는 가족 간 영상통화다.** 교통체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시간이 비는 만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도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시간은 늘어났다. 비대면 가족 모임을 위해 국내 통신 3사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명절 동안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두 손은 가볍게, 마음은 가득히
기프트콘 명절선물

가족과 함께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명절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가는 대신 택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홈족이 늘어나면서 선물만 고향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택배를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택배를 넘어 기프트콘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양한 분야의 선물들을 손쉽게 집에서 보낼 수 있는 기프트콘은 가장 빠르면서도 편리한 명절선물로 떠올랐다.**

택배나 기프트콘 명절선물이 늘어나면서 설 선물 품목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순금, 명품, 게임기, 안마기 등 각자의 취향을 고려한 품목들이 주목받고 있다. 몇 가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던 설 선물의 틀을 깨는 이색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선물들은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기존 추석 선물은 가족들이 모여 먹을 수 있는 품목이 대세를 이뤘지만 지금은 당장 먹지 않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소장하거나 가지고 싶은 상품으로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선호도의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명절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2023년 새해에는 가족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보며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새롭게 태어난 우리 술
주목받는 전통주

설날에 빠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떡국과 전 같은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한복, 세배처럼 설날 문화도 빠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술 역시 명절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그중에서도 최근 젊은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전통주가 조명받고 있다.** 전통주란 우리나라 전통의 양조 방법을 반영한 술로 우리의 풍토와 생활방식, 문화가 담긴 술이다. 전통주는 주세법상 발효주와 증류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집에서 술을 간단하게 즐기는 홈술족의 등장으로 이전과 다른 맛과 향을 가진 전통주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온라인 판매와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런 전통주의 인기는 명절이 되면 더욱 늘어난다. **전통주는 어른들이 좋아하면서도, 세련되고 맛있는 술로 누구나 가리지 않고 큰 선호를 보인다.** 특히 혼자 명절을 보내는 명절 홈족과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울리고 특별한 날인 명절에 선물용으로 적합하다. 아직 전통주에 대한 인지도는 대중적인 술인 맥주나 와인에 비해 낮은 편이며, 전통주의 종류나 특징, 즐기는 법 등 정보가 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와 관심만 있다면 맛있는 전통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특별하고 새로운 명절을 보내고 싶다면 전통주를 선택해보자.

작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다

동해지점

동해지점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내실’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겉만 잔뜩 부풀린 양적 팽창보다 작지만 알찬 질적 성장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양보단 질’이라는 말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과 업계 분석을 통한 냉철한 판단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략을 구상하곤 한다. 강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약점은 축소하거나, 약점의 한계를 안고서라도 강점만을 밀어붙여 성과를 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해지점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많은 이들이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강점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계점마저 지점만의 특성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동해지점은 최북단의 속초지점과 더불어 동해안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격지’라고 하지요. 이러한 지역적 편견이 사실이 아닌,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 영업지로서 교량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작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IBK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Reliability



East Sea

동해지점의 중심축인 김경환 지점장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있다. 그도 그럴 것이 동해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분명한 지역이다. 동해지점은 이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동해는 오징어 등 수산물가공 및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합니다. 따라서 어획량에 따라 각 사업장 매출액의 변동 폭이 크고 그로 인해 직원들의 부가 실적도 편차가 큼니다. 또한, 내점고객은 고령층이 많아 상품 안내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근 2금융과의 금리 비교로 지역금융권이 제시하는 금리에 수신 잔액의 변동도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동해지점은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고민해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동해지점은 동해안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앙 영업지로서 교량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작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IBK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약점마저 강점으로! 한계를 극복한 빛나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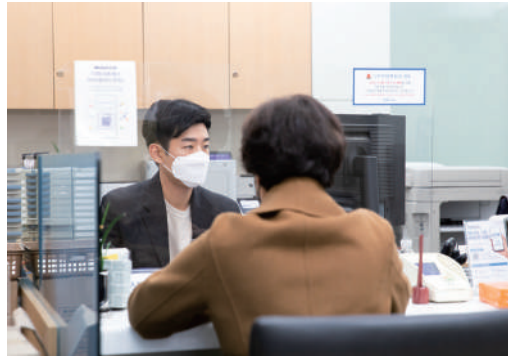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만은 오롯이 영업점의 몫이 됐다. 동해지점은 오히려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활용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영세사업자에게 정책자금 및 금리운용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고객님들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일차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님들이 금리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기대출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는 비단 동해지점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역이용해 타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어 갱신예금의 이탈이 많아지는 상황에 실적을 끌어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동해지점은 이를 소통과 신뢰로 극복해나가고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고객님들에게 믿음을 주고 정확하고 자세한 상품 안내로 고객님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고자 했습니다. 더불어 현 상황과 고객의 생각을 이해하는 친절함 응대로 개인 자산실적 부문에서 220%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 모두 제 일처럼 발 벗고 나서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지점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특성상 수산물 도소매업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향후 성장가능성과 잠재적 기술력을 지닌 업종을 선별하여 기술금융 차주로 선발·지원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동해지점은 혁신금융 부분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현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본에 집중했습니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안정성과
친절한 상품 안내로 개인
자산실적 부문 220%
달성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만들어낸 오늘**

빛나는 성과 뒤에는 늘 숨은 조력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동해지점은 지역 특성상 인근 거주자들의 근무 배치가 많아 적어도 2번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동료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고객과의 관계 역시 매우 우호적이다.

“동해지점은 그야말로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직원들이라 보니 지역 사정에 누구보다 밝고 무엇보다 고객님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잘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이웃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가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 동해지점은 늘 유쾌한 웃음이 넘친다. 사람을 향한 직원들의 진심이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셈이다.



동해지점 직원들은 업무를 위한 자기계발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김경환 지점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딱 하나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본’이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은 업무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바뀌는 업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리미리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는 1인 코치를 지정해 전 직원이 동참하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의 위험성이 큰 사례들은 함께 되짚어보며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수성과 한계점들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아 목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동해지점. 전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통합고객팀은 작지만 내실 있는 동해지점을 만들어가는 일등공신이다.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이를 발판 삼아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자세는 ‘경영평가 S등급 달성’이라는 동해지점의 목표 달성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지만 내실 있는

동해지점



서로 돕고 위하는 따뜻한 동해지점!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직원 모두가 멀티플레이어로서 활약할 수 있는 동해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업무의 벽이 허물어지고 동료가 힘들 때 기꺼이 도우며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지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함이 고객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고객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동해지점!

동해는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당장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잔잔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IBK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님의 일상에 가장 먼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해지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닝콜이 필요 없는 해 뜨는 동해로 맛있는 음식, 멋진 자연을 즐기러 많이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섯 글자로 말해요~

동해지점을 소개합니다!

김경환 지점장



바다를 품은

정금해 팀장



아름다운 곳

김아연 대리



우리는 하나

신재현 대리



몰지 않아요

정호덕 차장



행복이 가득

공선아 대리



여기는 동해

최지섭 과장



웃음이 가득

최희순 대리



마음 통하는

김숙희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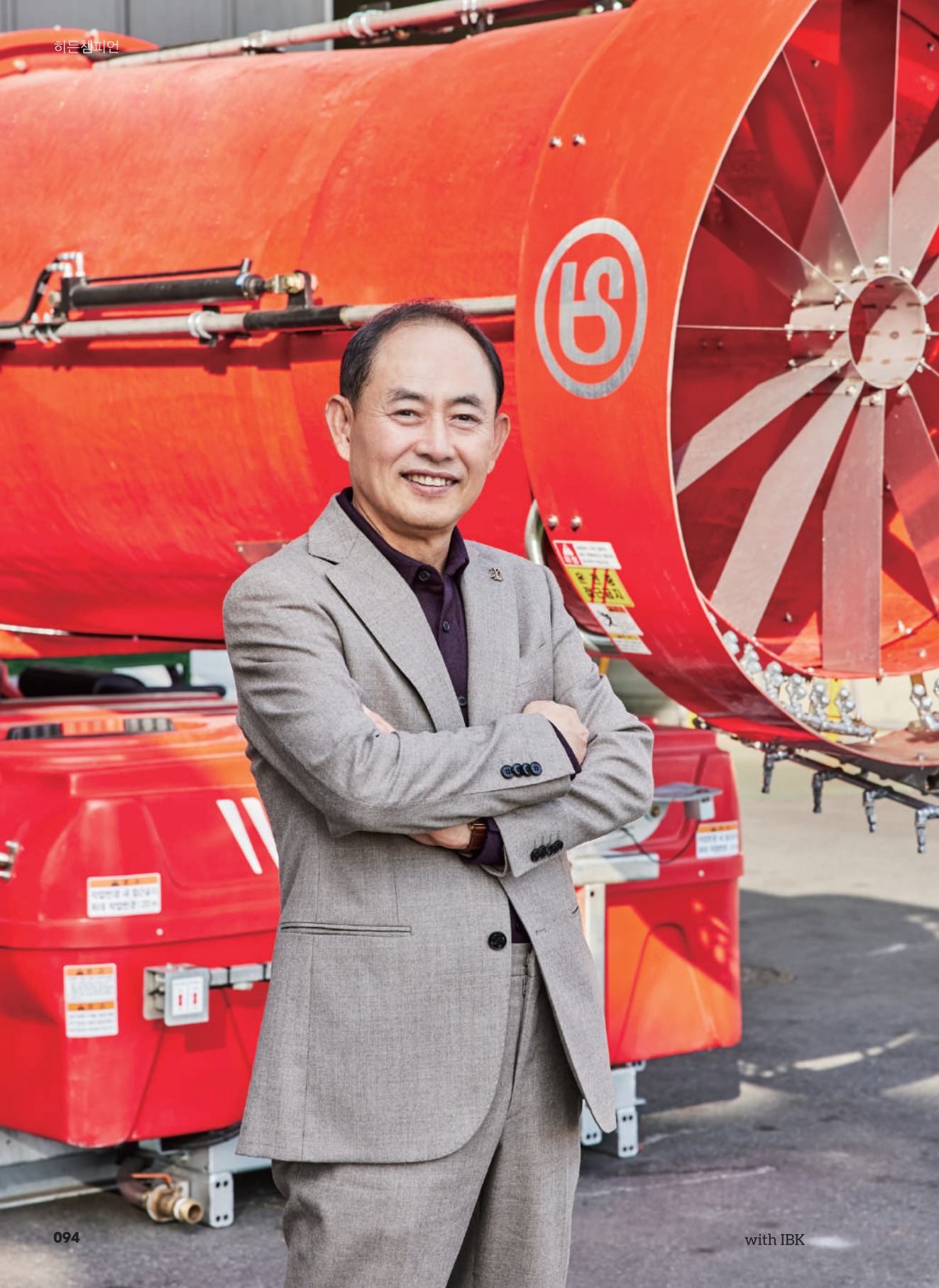


해피뉴이어

홍지원 경비원



행복하세요



방역차 업계의 변함없는 1위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주)한성티앤아이(이하 한성티앤아이). 기술력과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성티앤아이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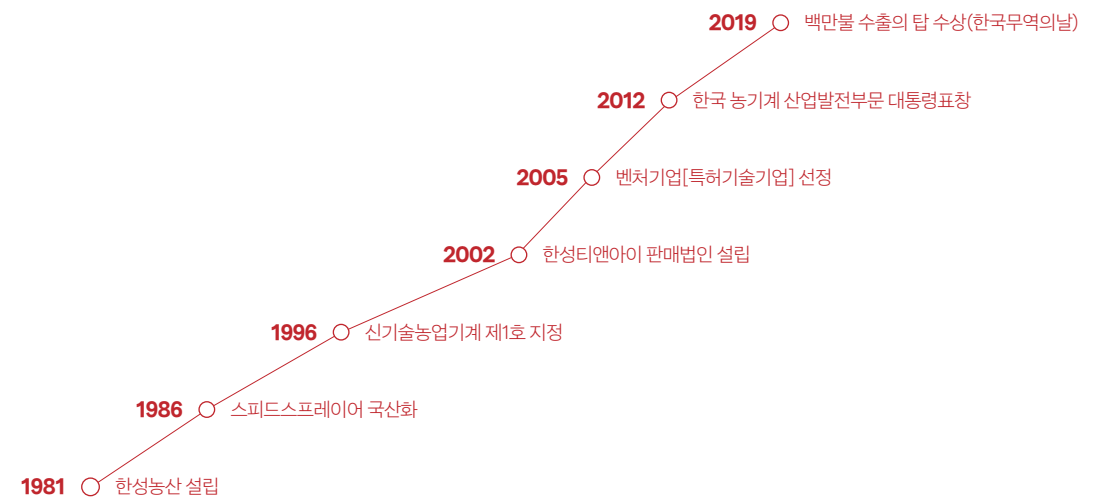
글 엄세권 사진 박시홍

방역차 압도적 1위, 국내 먹거리 산업과 함께 성장하다

(주)한성티앤아이
황인성 대표



천안중앙지점 거래 기업





국내 최초의 방역차 전문업체

한성티앤아이는 1981년 ‘한성농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무역업을 하던 초대 회장이 일본에서 방역기계를 보고 수입해보면서 사업을 시작해 국산화를 한 것이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많이 부족할 때였는데, 경운기 앞뒤에 방역 기계를 설치해 판매를 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기술적으로도 다소 미흡했고, 당시 한 대에 천만 원씩 하는 기계를 덤씩 구입할 만한 농가와 과수원은 많지 않았다.

이후 1990년에 방역도 하고 생산물 운반도 가능한 다목적기계 ‘스피드스프레이어’를 출시했다. 방역차를 운반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인데, 당시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계였다. 이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사업이 궤도에 올랐는데, 1990년대 정부의 농기계 지원정책이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번창했다.

“1990년대엔 사람들이 방역을 하나하나 손으로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게 무척 고된 작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영업사원이었는데, 가서 약을 한 번씩 쳐주면서 영업을 했어요. 하루 이틀 꼬박해야 하는 작업을 1~2시간이면 하니까 나중에는 좀 더 쳐달라고 사정을 해요. 하지만 과수원은 방역이 무

엇보다 중요하고 평당 소득이 높기 때문에 결국 구입을 하곤 했습니다.”

당시 정부 지원정책으로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할부로 구입이 가능했다. 사실 평수가 큰 농가나 과수원에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날개 돋힌 듯 제품이 팔려나갔다. 황인성 대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성티앤아이가 방역차 업계에서 국내 1위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고 자부한다.

위기에서 기회로, 직원에서 대표로

국내 농업의 성장과 함께 자리를 잡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국의 논과 밭, 과수원에 방역차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자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기업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떨어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당시 한성티앤아이의 대표직은 초대 회장의 2세가 맡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기업을 내놨다. 이때 한성티앤아이를 이어받은 것이 지금의 황인성 대표다. 일개 영업사원에서 지점장까지 올라온 그는 한성티앤아이의 위기에서 기회를 보았다고 한다.



농기계는 고치는 데 몇 주씩 걸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리점이 있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한 한성티앤아이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성티앤아이의 매출 가운데 80%는 재구매 고객입니다.

한성티앤아이 특징점

Step.1 시장점유율

오랜 시간 업계 1위의 시장점유율로 탄탄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Step.2 재구매율

전국 규모의 가맹점과 고객 서비스로 충성고객의 재구매율이 높다.

Step.3 글로벌 경쟁력

해외 동종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당시 한성티앤아이의 매출이 급락했지만, 사실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잠시 주춤한 것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죠. 농업에 있어서 방역이란 건 한 해 수확물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잘 쓰고 있던 기계를 다른 업체로 쉽게 바꿀 수가 없죠. 수명이 다하면 결국 다시 한성티앤아이를 찾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직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황인성 대표의 해안은 틀리지 않았다. 기계의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한성티앤아이를 찾는 고객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한성티앤아이는 탄탄한 기술력과 전국 각지에 자리잡은 대리점, 그리고 그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었던 것이다.

“농기계는 고장이 났을 때 수리 기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작업을 해야 농작물이 문제없이 자랍니다. 기계를 당장 써야 하는데 수리 기간이 몇 주씩 걸리면 그 해는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가맹점이 있고, 빠르게 수리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 한성티앤아이의 부정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한성티앤아이는 기계의 중고가도 높은 편이다. 한성티앤아이의 중고가가 업계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또 방역차량은 한 번 구입하면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사용하는데, 이미 한성티앤아이의 매출 가운데 80%는 수명이 다한 것을 재구입하는 고객이다. 그래서 한성티앤아이는 급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탄탄한 기업이라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도전자

방역차 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한성티앤아이는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도



전만이 성장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성티앤아이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었는데, 잠시 사업이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저희가 사업을 펼치던 곳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입니다. 이런 곳들은 농장 하나가 1억 평씩 하기 때문에 기업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장에 실제로 판매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장차와 건설기계 쪽으로도 사업을 넓히고 있다. 가로수 방제나 산불 방지를 위한 특장차를 생산해 관공서나 의용소방대 쪽으로 납품도 하고 있고, 건설업계에 필요한 스키도나 지게차도 생산하고 있다. 건설기계 분야는 기존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한성티앤아이의 기술력과 서비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1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한성티앤아이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제조회사는 물건이 잘 팔려도 물건을 발주 받고, 생산하고, 또 수금하는 사이클이 안 맞으면 은행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IBK에서 선뜻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ini Interview ①

어려울 때마다 선뜻 손을 내밀어준 IBK기업은행!



한성티앤아이 황인성 대표

Q. 한성티앤아이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끝없는 도전정신과 열정, 화합입니다. 도전정신이 있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고, 열정과 화합이 있어야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한성티앤아이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Q.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우리 회사가 아직 한성농산물 때부터 거래를 해왔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로 회사를 옮기고 나서도 30년째 거래를 이어오고 있죠. 제조회사는 물건이 잘 팔려도 물건을 발주 받고, 생산하고, 또 수금하는 사이클이 안 맞으면 은행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IBK에서 선뜻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Mini Interview 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천안중앙지점 허은지점장

Q. <with IBK> 독자들을 위해 천안중앙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천안중앙지점은 삼성전자 및 관련사의 성장으로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위주의 타 점포들과 차별화하여 개인고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3년 8월 롯데마트에 개점했습니다. 이후 2005년 9월 현 점포로 이전하여 개인과 기업의 균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Q.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한성티앤아이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A. 한성티앤아이는 농업용, 임업용, 특수장비용 운반차, 제조기, 살포기, 특장차 등을 제조하고 있으며, 특히 방제용 농기구는 국내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벤처, 이노비즈, 특허, ISO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로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IBK창공 기업

IBK창공
마포

불안한 노후,
코그테라 하나면 걱정 끝!



이모코그

60대 이상 노인의 가장 두려운 질병인 치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모코그에선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모코그는 노인의 뇌 건강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치매 관리 디지털치료제(DTx)인 '코그테라(Cogthera)'를 개발했다. '코그테라'는 약물이 아닌 환자의 행동이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끌어내는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을 선보여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emocog.com

IBK창공
구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새로운 온라인 시대를 열다



㈜폼즈

㈜폼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구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인플루언서 시장에 돌연 혜성처럼 등장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뿐만 아니라 이미 제작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기업과 연결해주고, 라이브 커머스를 비롯한 마케팅까지 담당해주는 ㈜폼즈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새로운 온라인 시대를 개척할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formskorea.com

IBK창공
부산

복잡한 채용업무를
쉽고 간단하게



㈜나인하이어

㈜나인하이어는 채용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시간을 줄이고 지원자들과의 길고 복잡한 채용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다룰 수 있는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제공하는 업체다. 빠른 채용 접수부터 실시간 지원자 관리 및 일정조율과 협업평가까지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의 채용 업무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ninehire.com

IBK창공
대전

전 세계
모든 패션 브랜드를 한눈에



㈜데이터몬스터즈

㈜데이터몬스터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패션 특화 검색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그중 전 세계 모든 패션 브랜드 상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AI 기반의 글로벌 패션 검색엔진 '요잇(YOIT)'으로 글로벌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패션 분야의 구글을 목표로 하고 있다.

damons.kr

IBK창공 마포



치매 식별 검사부터 인지훈련까지 한 번에

(주)이모코그는 치매 환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보자는 노유현 대표의 생각에서 출발했다.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상심리사 등 의료 전문가들과 국내, 해외 글로벌 대기업 출신의 프로그래머로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주)이모코그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치매 식별 검사부터 인지훈련까지 모든 서비스가 음성 기반으로 제공되는 '코그테라(Cogthera)'를 선보였다. 코그테라의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는 기존 약물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약물 복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치료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정밀 난이도를 반영한 개인 맞춤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전문성까지 갖췄다. 국내 최초 치매 소프트웨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확인까지 마친 코그테라는 현재 비임상시험을 마친 후 본격적인 품목 허가 절차에 돌입했으며,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다.



IBK창공 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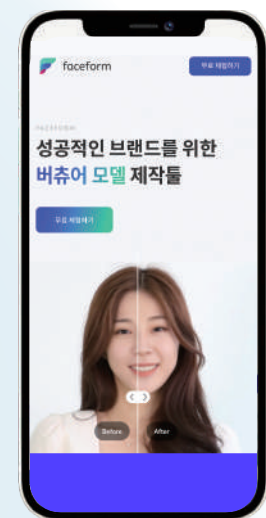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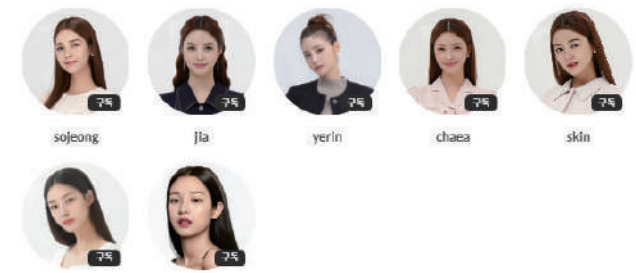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기업의 이미지를 새롭게

(주)폼즈는 화장품 회사에 재직할 당시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면서 겪었던 고충을 겪었던 경험이 있던 이정진 대표가 인플루언서 시장에 변화를 주고자 만든 기업이다. (주)폼즈는 가상 인물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제작부터 마케팅 운영 대행, 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SaaS/HW를 제공하는 Full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폼즈는 '페이스폼(Face Forms)' 소프트웨어로 사람 얼굴에 대한 이미지를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 버추얼 인플루언서 얼굴을 볼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다단계 편집 과정을 진행해 완성도 높은 가상 인플루언서를 제작하고 있으며, '폼즈 스튜디오(Forms Studio)'를 통해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라이브 콘텐츠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할 경우 기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며 들었던 광고 모델 비용을 최대 80%까지 아낄 수 있다. 2023년 10억 매출을 바라보고 있는 (주)폼즈는 점점 성장하는 인플루언서 시장에 발맞춰 향후 글로벌 패션 및 광고 모델 시장을 겨냥해 해외 진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얼굴 변환하기

버추어 모델을 선택한 후,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양한 모델을 적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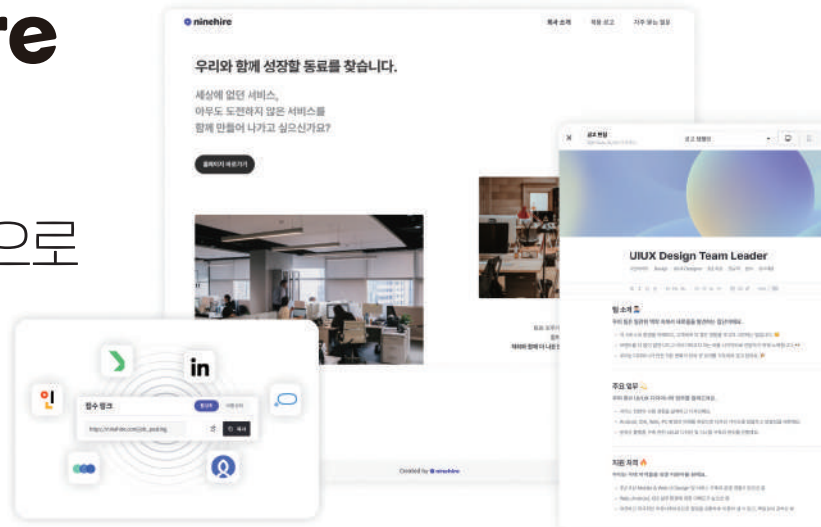
Step 1 버추어 모델을 선택하세요



IBK창공 부산



모든 채용 업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주)나인하이어는 점점 치열해지는 채용 시장 속, 늘어나는 채용 채널과 파편화된 업무들로 인해 채용담당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덜어줄 채용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나인하이어는 기업의 채용업무에 많은 불편함이 있다는 정승현 대표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2021년 12월 출시된 (주)나인하이어의 채용 솔루션은 기본적인 채용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채용담당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빠른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장한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 및 핵심인력이 모여 핵심 도메인 개발에만 리소스를 집중하고 보안, 권한관리, 커스터마이징, 확장성 이슈 등에 쉽게 대처할 수 있어 가능한 시스템이다. (주)나인하이어의 채용 솔루션은 현재 420여 곳의 기업이 사용 중으로 이제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견·대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스파크랩,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파스트 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유치를 기회 삼아 채용 속도와 효율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여러 기능을 추가할 계획임을 밝힌 (주)나인하이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등 채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IBK창공 대전



'요잇(YOIT)'으로 즐겁고 후회 없는 쇼핑하자



(주)데이터몬스터즈는 2016년 설립 이래 A to Z 데이터 컨설팅이라는 영역을 개척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1년, 스타일테크 기업으로 피보팅하며 글로벌 패션 특화 검색엔진 '요잇(YOIT)'을 출시했다. 이제원 대표는 “전 세계 패션을 데이터화하여 온라인 소비의 시작, 탐색, 결정, 실행, 자산화까지 서비스하겠다는 목표로 세상의 모든 소비자가 즐겁고 후회 없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혔다. 요잇은 2022년 상반기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영미권 시장에 먼저 발을 디뎠으며, 글로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서서히 넓혀 나가고 있다. 전 세계의 패션을 데이터화해 온라인 소비의 시작, 탐색, 결정, 실행, 자산화까지 아우르는 서비스화를 목표로 둔 (주)데이터몬스터즈는 자신만의 검색조건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요잇으로, 어렵고 불안함을 느끼던 소비자들의 온라인 소비를 즐거운 놀이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한 해를 알차게!

나에게 맞는 다이어리 고르는 법

다이어리는 한 해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는 수단이다. 예쁘게 디자인된
다이어리를 보면 다가올 한 해가 설렘으로 가득
차지만, 지난해 사들여 방치된 다이어리를 보니
새로 사기가 망설여진다.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신년맞이 다이어리 고르는 꿀팁!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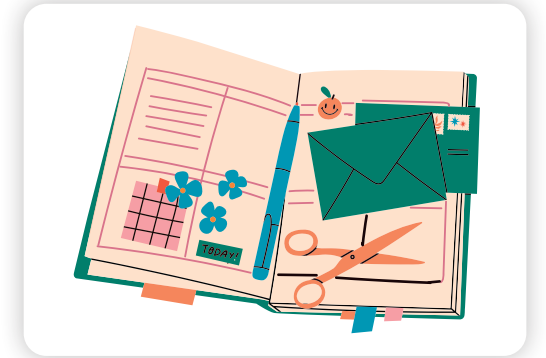


내게 맞는 다이어리 유형 한 번에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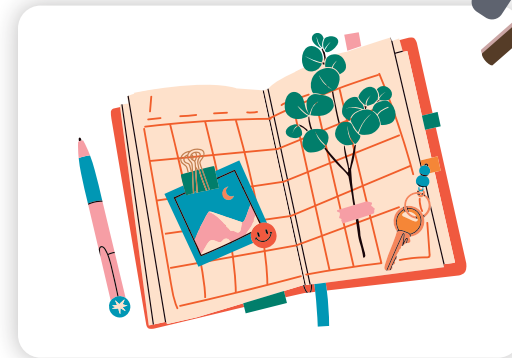
데일리 다이어리

그날그날의 스케줄을 정리하고, 여러 정보들을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다. 메모할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이나 아직 배울 게 많은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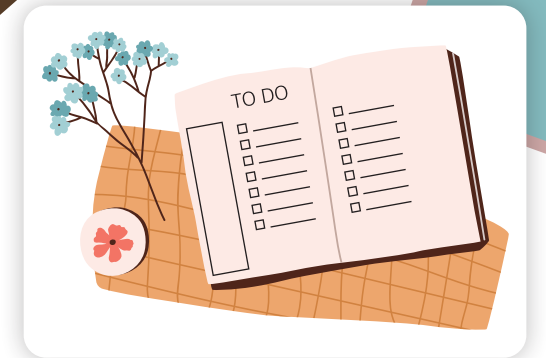
위클리 다이어리

한 주간의 스케줄을 정리하기 용이한 다이어리다. 먼슬리와 데일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가장 판매율이 높은 다이어리다.



먼슬리 다이어리

한 달 간의 스케줄을 정리할 수 있는 다이어리로, 스케줄러에 가깝다. 비정기적인 스케줄이 많은 직무를 맡고 있다면 추천한다.



프로젝트 다이어리

정기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프로젝트별로 스케줄이 달라지는 직무를 맡고 있다면 프로젝트 다이어리를 써보자. 프로젝트별로 스케줄과 메모를 따로 정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특별한 다이어리를 위한 커버와 속지 선택하기



독서 다이어리

독서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리로, 기억에 남는 구절과 읽고 싶은 책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새해 다짐을 책 읽기로 정했다면 독서 다이어리를 선택하자.



가계부형 다이어리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소비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다. 올해 목표가 자린고비, 저축이라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양장본 커버

일반적인 다이어리가 소프트 커버라면 양장본은 하드 커버다. 언제나 들고 다니며 기록을 할 계획이라면 흠집과 습기에 강한 양장본을 선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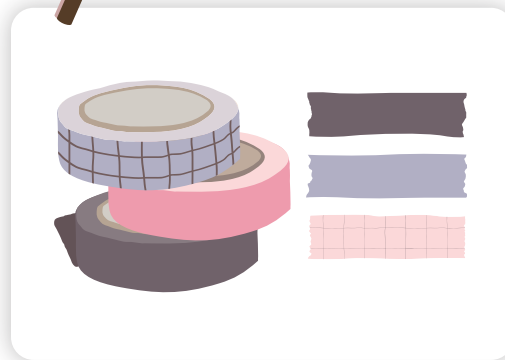


육공 커버

6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취향에 따라 속지를 갈아 끼울 수 있는 형태의 다이어리다. 속지를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 가족으로 된 육공 커버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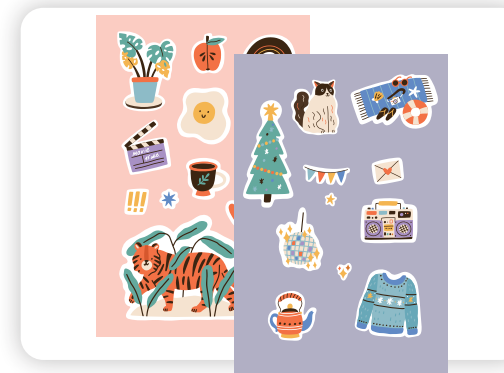


다이어리를 조금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소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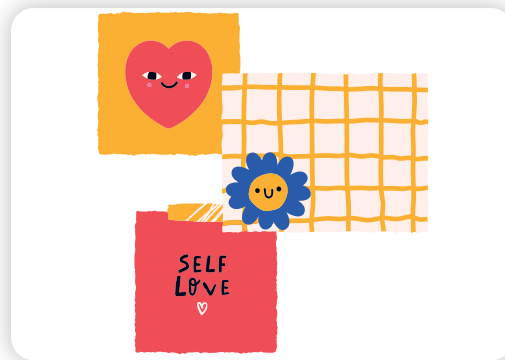
마스킹 테이프

중요한 일정이나 문구를 강조하고 싶다면 마스킹테이프를 활용해보자. 다양한 일러스트가 그려진 것부터 글씨를 쓸 수 있는 종이 재질 테이프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어 있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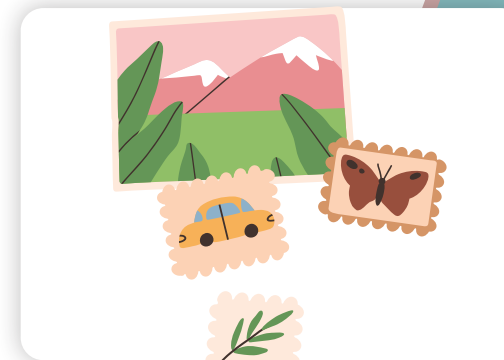
인쇄 스티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림 그리는 것에 소질이 없거나 투박한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귀엽고 다양한 스티커를 활용하면 더 멋지게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다.



떡메

떡메모지의 줄임말로 접착력이 없는 포스트잇을 말한다. 아기자기하고 톡톡튀는 기발한 디자인이 장점! 감성 배경을 품고 있는 떡메와 귀엽보짜한 캐릭터, 일러스트가 그려진 떡메를 취향 따라 골라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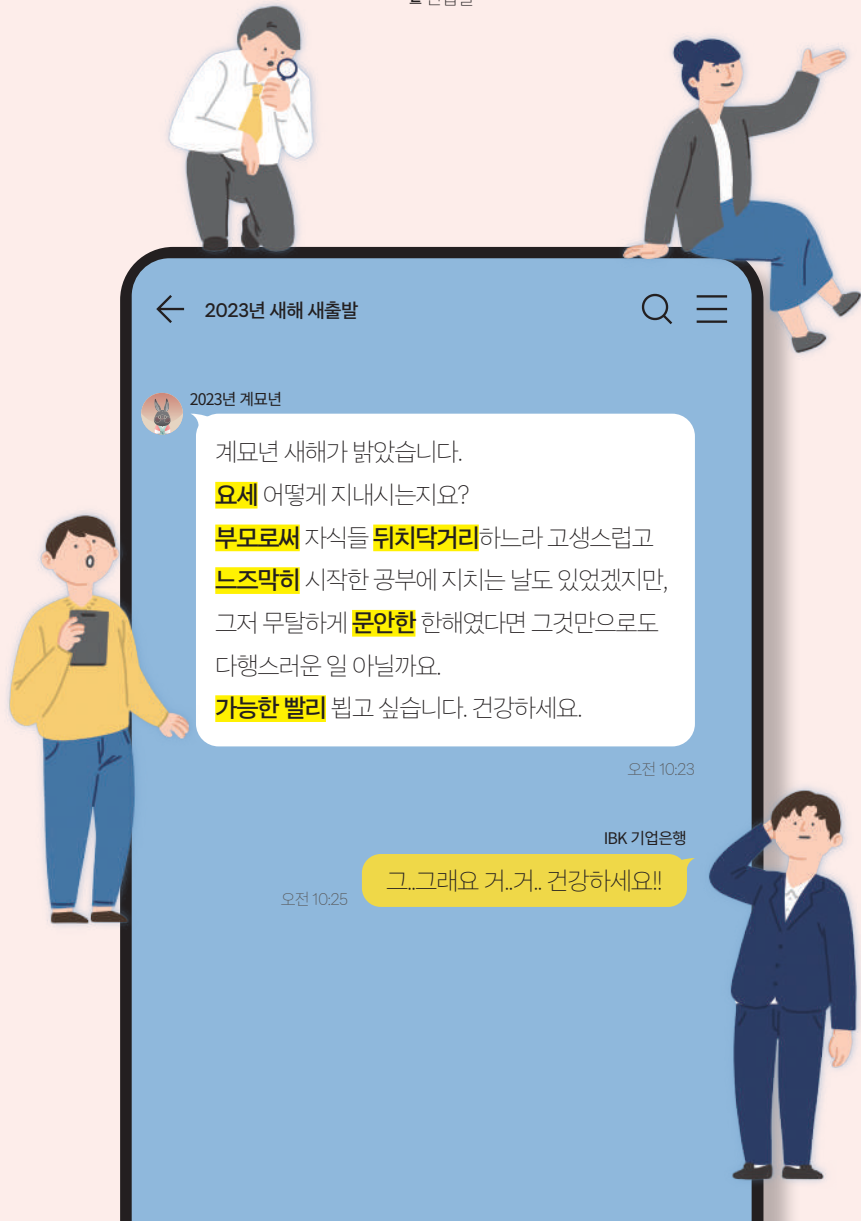
엽서

감성 넘치는 도시 사진, 귀엽고 아기자기한 캐릭터 등 다양한 디자인의 엽서는 다이어리를 꾸밀 때도 유용하다. 다이어리에 들어갈 크기에 맞게 잘라 원하는 자리에 붙이면 밋밋했던 다이어리에 입체감이 생겨 더욱 다채로워진다.

새해 인사 문자 고마운데 이런 **맞춤법** 너무 거슬려...!

반갑고 고마운 새해 인사 문자가 도착했다. 하지만 문자 속 숨어 있는 잘못된 맞춤법 때문에 내용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면...? 메시지 전송 전 틀린 맞춤법은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자.

클 편집실



요세
↓
요새

‘이제까지의 매우 짧은 동안’을 뜻하는 단어는 ‘요새’입니다. 명사인 ‘요새’는 ‘요사이’가 줄어든 말임을 떠올린다면 틀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요세’는 ‘예전에, 요역과 세금을 아울러 이르던 말’로 요즘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는 단어입니다.

부모로써
↓
부모로서

조사 ‘로서’와 ‘로써’는 사용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음악인으로서 큰 영광입니다”처럼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 ‘로서’를 사용합니다. “음악으로써 병을 치유한다”처럼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로써’를 사용합니다.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를 가지고’나 ‘~를 사용해서’를 넣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를 가지고’나 ‘~를 사용해서’를 넣었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로써’, 어색하면 ‘로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뒤치닥거리
↓
뒤치다꺼리

‘뒤치다꺼리’가 맞는 표기입니다. ‘일이 끝난 뒤에 뒤끝을 정리하는 일’ 혹은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을 뜻하는 ‘뒤치다꺼리’는 접미사 ‘-거리’와 ‘뒤치닥’의 결합으로, ‘뒤치닥거리’로 헛갈려하지만, 어원에서 멀어진 경우라 ‘뒤치다꺼리’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느즈막히
↓
느지막이

‘느지막이’는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게’, ‘정해진 때보다 꽤 늦은 감이 있게’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느즈막’은 ‘느지막’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느지막’이 맞는 표현입니다. 헛갈리기 쉬운 ‘느즈막이’, ‘느즈막히’, ‘느지막히’ 모두 잘못된 표기이니, 사용에 주의해 주세요.

문안한
↓
무난한

‘별로 어려움이 없다’, ‘성격 따위가 까다롭지 않고 무던하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는 ‘무난하다’입니다. ‘없을 무(無)’에 ‘어려울 난(難)’ 자가 결합된 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문안’은 ‘물을 문(問)’에 ‘편안할 안(安)’ 자를 사용하며 ‘웃어른께 안부를 여쭙. 또는 그런 인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능한 빨리
↓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은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으로 ‘할 수 있는’ 또는 ‘될 수 있는’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또는 ‘가능한 조건 하에서’를 의미하는 부사구로 부사어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꾸미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예에서는 ‘가능한 한’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TV 광고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방영

TV 광고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캠페인을 선보인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중소기업 대표자 및 직원을 주인공으로, '사장님 편', '직원 편', '인생 편' 총 3편으로 구성됐다.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라는 메인카피를 통해 기업을 존중하며, 기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철학을 담았다. 영상은 배우 이재훈의 진정성 있는 내레이션과 함께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로 연출했으며, TV 채널과 유튜브 등 SNS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다.



CSS Awards 2022 수상

CSS Awards 2022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저' 부문에서 수상했다. CSS Awards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창업육성플랫폼인 'IBK창공(創工)'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CSS Awards'는 세계 최대의 민간국제경제기구인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주관하는 글로벌 시상식으로 매년 스타트업 지원 및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구천동 공구시장에 희망디자인 기부

수원특례시와 손잡고 구천동 공구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시장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재생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행은 점포환경 개선을, 수원시는 시장 고객센터 신축을 맡아 진행됐다. 기업은행은 디자인 사회공헌 사업인 'IBK희망디자인'을 통해 노후된 간판과 차양막, 지주간판 및 안내간판, BI 등을 새롭게 교체하고 전통 대장간 등 4개 점포에 특화디자인을 적용해 시장과 거리를 더욱 생기있게 개선했다.



CDP 최고등급 획득

글로벌 ESG평가기관 CDP의 2022년 기후변화 대응부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구로 전 세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경영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평가기관이다. 올해 'Leadership A' 등급은 약 18,000개의 기업 중 1.6%인 283개 기업이 획득했다.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 전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525명에게 장학금 10억 2,4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금 후원에는 장학생의 가족이 근무하는 기업도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들은 향후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하는 'IBK멘토링'에 참여해 나눔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해 총 615억 원을 출연했으며 지금까지 장학금 189억 원, 치료비 136억 원 등을 후원했다.



중소기업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운영

금리상승기 저원가성예금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재원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022년부터 3년간 약 8천억 원 규모로 금리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또 지난 11월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적용하고 있는데, 개편된 대출금리 체계로 인해 기존 대비 금리가 오르는 대출계좌에 대해서는 금리상승분을 은행이 자체 부담해 고객의 금융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연착륙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월의 단어]
‘꼭 이루고 싶어’

위에 주어진 7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N행시 예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민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뤄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쉽(쉽)지 않겠지만 함께 만들어봐요.
루(누)구나 행복한 세상,	어케이~?!

*아래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1월 2일 ~ 1월 31일(엽서는 31일까지 발송)
참여 방법 아래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2월 15일 이내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1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1월호에 소개된 곳]

40p IBK맛집노트 IBK본점편	46p 발길 닿는 길 강릉 해파랑길	54p IBK산 무등산	70p IBK핸드메이드 자이언트 안가방 만들기
--------------------------	---------------------------	--------------------	---------------------------------

인증샷 이벤트 참여하기

인증샷을 찍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2023년 1월 2일 ~ 1월 31일
참여 방법: 위 QR코드로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2월 15일 이내



12,340 likes

with IBK # IBK맛집노트 # 발길 닿는 길 # IBK산 # IBK핸드메이드

2022년 12월 스도쿠 정답

2022년 '스도쿠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는 '이달의 N행시'와 '이달의 인증샷' 이벤트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	6	5	2	1	9	3	7	4
9	2	3	5	7	4	8	6	1
4	7	1	8	6	3	9	2	5
3	1	4	9	2	6	7	5	8
6	5	2	4	8	7	1	3	9
7	8	9	3	5	1	6	4	2
2	4	7	1	3	8	5	9	6
1	9	6	7	4	5	2	8	3
5	3	8	6	9	2	4	1	7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땐
어쩐지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알차게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다이어리에 깊게 눌러 적은 소원들이
하나씩 이뤄지기도 하고,
또 내년으로 미뤄지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꼭, 이루길 바라.



